

## 2026년 남가주, 다시 '기도'로 뜨겁다

제56대 남가주교협이 지난해 11월 말에 회장 김은목 목사가 취임한 이후 2026년도에는 무엇보다 기도에 중점을 둘 것을 천명했다.

교협은 7일 오전 10시 30분에 평화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26년도에 해나갈 사역 계획을 나누고, 지금껏 교협이 해왔던 사역들을 계속 유지 및 구체화시키면서 중보기도를 통해 남가주 교회들이 더욱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지역사회 복음 확장을 위해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목 목사는 "매월 말에 기도 성회를 열어서 사역자들 마음이 회복되고, 10월 중순에는 제 1회 할렐루야 남가주 기도 성회를 규모있게 펼치려고 한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 고민했을 때 기도 사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회 시작이 어디냐고 했을 때 사도행전 2장 성령의 역사를 그 시작점으로 보고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초대 교회로 돌아가 가장 본질적인 기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을 뽑



기자회견 후 남가주교협 임직원 단체사진

으라면 교회론을 중요시하고, 실천신학 부분에서도 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교회주의자라고 말할수 있을 정도로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때문에 남가주 교협에 들어오게 되었다"면서 "교회가 연합해서 할수 있는 일을 교협이 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사역들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임하겠

다"고 했다.

교협은 올해 매달 마지막 주 주일에 기도성회를, ▶ 3월 26일 신학 세미나, ▶ 4월 5일 부활절 새벽연 합예배, ▶ 5월 중순 스승의날 위로 여행, ▶ 8월 15일 광복 기념 감사 패스티벌, ▶ 9월 7~9일 멕시코 단기선교, ▶ 10월 16~18일 제 1회 할렐루야 남가주 기도성회, ▶ 10월 22일 차세대 목회자 후원 이사장배 골프대회, ▶ 11월 13~14일 사랑의 쌀 나눔 행사, ▶ 12월 10일 이취임 및 성탄감사예배를 계획하고 있다.

송금관 목사(부회장)는 신학세미나에 대해 설명하면서 "출석 인원 감소, 다음세대 감소 등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는 한인 이민교회의 미래 비전을 고민하는 세미나로 외부 전문 시각으로 데이터화하고 진단하고자 하는 모임이 될 것 같다"며 "이민교회의 고립이 아닌 다민족교회와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미래를 준비해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토마스 맹 기자



미주성시화이사장  
최문환 장로 별세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으로 섬겨온 최문환 장로가 지난 1월 6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93세다.

고인은 생전 "나는 원래 금수저였다. 아버지가 서울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시던 분이셨다"며 젊은 시절을 회상하곤 했다. 대학 재학 시절 형광등 사업을 시작으로 봉제공장과 인쇄공장까지 운영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고, 젊은 나이에 상당한 부를 이루었다. 그러나 인쇄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을 잃는 중대한 시련을 겪게 된다.

최 장로는 이 사건을 자신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고백해 왔다. 그는 "그 사고가 없었다면 고만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며, 그 일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후 그의 삶은 성공 중심의 인생에서 나눔과 섬김의 인생으로 방향을 바꾸게 됐다.

고인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이사장을 역임하며 남가주 교계에 큰 영향력을 끼쳤고, 한인동포재단, 거리선교회, 남가주장로협의회 등 여러 단체에서 헌신했다. 또한 월드미션대학교에서는 송정명 목사가 총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학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 2면에서 계속

## 전 세계 인구 절반, 종교 박해 속… 서구권 반기독교 공격 증가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41억 명이 일정 수준 이상의 종교 박해를 겪고 있다는 국제 보고서가 발표됐다고 12일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유럽과 북미 등 서구권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과 차별 사례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가톨릭 원조 단체 '교회에 대한 원조(Aid to the Church in Need, ACN)'는 최근 발간한 「세계 종교 자유 보고서 2025」를 통

해, 종교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24개국에서 종교를 이유로 한 박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 41억 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3분의 2,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 국가에 거주

조사 결과,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54억 명이 종교 자유 침해가 심각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

고서는 프란시스코 교황이 2016년 제시한 개념을 인용해 종교 박해를 '노골적 박해'와 '정중한 박해(polite persecution)'로 구분했다.

'정중한 박해'는 법적·문화적·국제적 압박과 같은 보다 은밀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종교 억압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특히 서구 사회에서 이러한 형태의 박해가 제도와 문화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독교인을 겨냥한 범

죄 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혐오 범죄에 비해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 현상은 정중한 박해의 전형적인 신호"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지역에 대해 특별한 우려를 표했다. 약 3천5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지역에서 기독교인을 겨냥한 범죄와 적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가가 이를 제대로 진계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승연 기자 → 4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7 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면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 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 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T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태양광, 솔라!!**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01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6년 설치 시)  
원금 회수 기간: 3년~6년  
전기로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2026 신년축복성회**  
**믿음의 축복**  
를 던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23)

2026.1.22(목)~25(주일)  
목(7:30pm), 금(5:15am, 7:30pm)  
토요일(6:00am, 7:30pm), 주일(1부~4부)  
강사: 방재길 목사 (세계로방주교회 담임)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본당

방재길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주일 1부 7:20AM, 2부 9:10AM, 3부 11:20AM, 4부 2:00PM 금요성경집회 7:30PM 일천번제 새벽예배 월~금 5:15AM, 토 6:00AM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 TEL: 714.446.1000 | www.gracemi.com

## 한세콘서트콰이어 미국 순회연주

박신화 교수 지휘, 40여 명 단원과 정상급 성악가진 참여 1월 23일부터 남가주 순회… 26일 ‘한미 기도 모임’ 서 평화의 선을 선사

‘한세콘서트콰이어’가 2026년 새해를 맞아 미국 순회연주를 개최한다.

이번 순회연주는 한국 합창계의 거장 박신화 석좌교수의 지휘 아래, 한세대학교 예술학부 성악 전공 재학생 및 대학원생 40여 명으로 구성된 글로벌봉사단이 참여한다. 여기에 세계적인 바리톤 최종우, 메조소프라노 류현수, 피아니스트 박진희 등 정상급 교수진이 협연해 음악적 완성도를 한 층 높일 예정이다.

공연 프로그램은 ‘물 위를 걷는 자’, ‘Amazing Grace’ 등 깊은 울림의 성가곡부터 루카 마렌지오의 고전 합창곡, ‘주기도문’ 등 친숙한 작품들로 구성된다.

이번 투어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음악이라는 공통 언어를 통해 한미 양국의 유대

를 강화하고 이민 사회에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민간 외교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1월 26일(월) 베벌리 힐즈에서 열리는 ‘한미 지도자 기도 모임’에서는 양국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기도의 선율을 선사할 예정이다. 박신화 교수는 “열정으로 무장한 젊은 성악가들의 목소리가 미주 한인 사회와 미국 땅에 치유와 희망의 씨앗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주요 순회 일정]

- ▶ 1/23(금) 7:30pm 남가주샬롬교회 (제 24회 창작성가제)
- ▶ 1/24(토) 5:00pm 베델교회 (Concordia 대학교 학동공연)
- ▶ 1/25(일) 11:00am 은혜한인교회 / 5:30pm 선한목자교회
- ▶ 1/26(월) 7:30am 한미 기도회 (Beverly Hills, CA)
- ▶ 1/28(수) 7:30pm 나성순복음교회

[문의] 714-484-1190(미주복음방송)



## OC 목사회 48주년 기념예배

오렌지카운티 목사회가 오는 2월 1일(주일) 오후 5시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에서 창립 48주년 기념예배 및 회장 이취임식을 연다.

이번 이취임식에서는 강문수 목사(47대 회장)이 이임하며, 정찬군 목사(48대 회장)가 취임한다.

일시: 2월 1일(주일) 오후 5시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 교회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문의: 562-315-6543(정창군 목사)

## 가든 그로브 센터메디컬클리닉 전문성 강화



지난 1월 14일(수) 오전 9시 30분에 센터 메디컬 직영 가든 그로브 클리닉은 내과·내분비 통합 진료 모델을 제시하며, 고령 환자들의 신체적 건강까지 함께 돌보는 새로운 의료 접근 방식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현주 MD는 일반 내과 진료를 비롯하여 심장병 및 뇌졸중 예방, 만성질환 관리, 당뇨병 및 갑상선 질환, 골다공증과 호르몬 불균형 치료까지 폭넓은 진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 한 분 한 분을 세심하게 살피는 맞춤형 진료를 통해 지역 사회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

특히 시니어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내과·내분비 통합 진료 모델을 제시하며, 고령 환자들의 신체적 건강까지 함께 돌보는 새로운 의료 접근 방식으로 큰 관심을 모이고 있다.

이날 개원식에서는 선착순 250명에게 당일 빙은 떡과 푸짐한 선물 가방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민선 기자

주소 12372 Garden Grove Blvd, Unit B, Garden Grove, CA 92843  
예약 및 문의: 714-583-8569  
월~금 8:30-5:30

## 최문환 장로 천국 환송예배 26일

→ 1면 기사 <최문환 장로>에 이어 서 특히 미주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제 2대 이사장으로 섬기며 조직의 성장과 안정을 이끌었고, 이후에도 명예이사장으로서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2009년부터는 한인 2세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고국체험학교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또한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을 통

다. 지병이 악화되기 전까지 십 수년 간 열정적으로 사역을 이어갔고, 이후에도 교계를 향한 관심과 지원을 멈추지 않았다.

최문환 장로는 1933년 6월 서울에서 태어나, 중앙중·고등학교와 연희전문학교(현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장영은 권사와 결혼해 2남 2녀를 두었다. 1978년 도미한 이후에도 인쇄 사업 등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며, 평신도로서 목회자들의 뒤에서 묵묵히 섬기며 남가주 교계에 큰 족적을 남겼다.

고 최문환 장로의 천국환송예배는 1월 26일(월) 정오, Forest Lawn Hollywood에서 거행되며, 말씀은 송정명 목사가 전할 예정이다.

## 정용치 목사 천국 환송예배 16일

남가주 감리교 원로목사회 회장 역임, 밴나이스 연합감리교회를 담임했던 정용치 목사가 지난 2025년 12월 30일(화) 향년 83세를 일기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고 정용치 목사의 천국 환송예배는 1월 16일(금) 오전 10시 드림교회 (Dream Church LA,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에서 거행되며, 하관예배는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에 헬리웃 포레스트 루 (Forest Lawn Hollywood Hills)에서 드린다.

고인은 1942년 일본에서 태어나 감리교신학대학을 졸업했다.

1968년부터 강화 동막교회, 인



천 선린교회, 서울 진관교회를 섬겼으며, 1984년 미국에 파송되어 뉴멕시코 주 앨버커키 한인 감리교회를 개척해 시무했다. 이후 LA 글렌데일 연합감리교회(현 드림교회), 밴나이스 연합감리교회를 섬기며 19년간 이민 목회를 했다. 2003년 귀국하여 감리교 본부 연수원장으로 사역했으며, 엠마오 공동체 대표로 섬겼다.

## GBC 공개채용

미주복음방송 KGBC에서 2026년을 함께 열어갈 방송선교 동역자를 공개 채용한다. 모집 분야는 아나운서, 음향 엔지니어, 영상 제작, 기획·홍보 등이며, 정규직과 파트타임 채용이 함께 진행된다. 접수는 1월 1월 25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미주복음방송 홈페이지 kgbc.com에서 확인 및 접수할 수 있다.

## 신년 시무예배 및 하례식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는 2026년 남가주 교계 한인 커뮤니티 지도자 초청 신년 시무예배 및 하례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과 인생의 흔적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일시: 2026년 1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평화교회(2583 W. Pico Blvd, LA, CA 90006)

• 인파차: 213-999-1923, 310-321-2348

## 남가주 교협 신년 시무예배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김은목 목사)는 2026년 신년 시무예배 및 하례식을 1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평화교회에서 드린다.

일시: 1월 21일(수) 오전 10:30

장소: 평화교회(2583 W. Pico Blvd, LA, CA 90006)

문의: 213-999-1923, 310-321-2348



기독일보  
창간 22주년을  
축하합니다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 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시스코, 베이징,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디트로이트, 애틀랜타, 뉴저지 월 2~3회 정기 운행

###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기독일보  
창간 22주년을  
축하합니다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 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시스코, 베이징,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디트로이트, 애틀랜타, 뉴저지 월 2~3회 정기 운행

###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기독일보  
창간 22주년을  
축하합니다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 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시스코, 베이징,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디트로이트, 애틀랜타, 뉴저지 월 2~3회 정기 운행

###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기독일보  
창간 22주년을  
축하합니다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 타주이사

## OC장로협 김영수 장로 “지역사회 섬기는 데 앞장서길 소망”

제12대 회장 및 이사장  
이취임 감사예배, 황치훈 장로  
이사장 취임

오렌지카운티 장로들의 연합체인 OC장로협의회 제12대 회장 및 이사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12월 27일 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 친교실에서 열렸다. 이날 예배에서는 신임 회장 김영수 장로와 이사장 황치훈 장로가 취임했다.

제1부 예배는 정장섭 장로(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됐다. 사도신경고백과 찬송, 김태수 장로(5대 회장)의 기도에 이어 시편 33편 12절 말씀 봉독이 있었다. 특별찬양은 은혜한인교회 찬양팀이 맡았으며,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담임)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지도자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한기홍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제2부 이취임식은 한정훈 아나운서(복음방송)의 사회로 진행됐다. OC장로 성가단의 초청 합창과 함께 황치훈 장로가 ‘장로협의회의 지난 발자취’를 영상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전임 회장 김종대 장로와 전임 이사장 신명철 장로가 이임 인사를 전했다.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김영수 장로는 취임사에서 “오늘 이취임식을 갖게 된 모든 과정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 그



(좌측부터) 이사장 황치훈 장로와 회장 김영수 장로, 최석호 의원. © 기독일보

동안 OC장로협을 아름답게 이끌 어온 선배 회장과 임원들의 헌신 위에 협의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신임 회장으로서 지역사회와 교회 앞에 맡겨진 사명을 깊이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겠다. 이민사회와 다음 세대에 믿음의 본을 보이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데 앞장서는 OC장로협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사장으로 취임한 황치훈 장로는 “부족한 사람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

지난 세월 협의회를 든든히 세워온 선배 장로들과 회원들의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회장단을 충실히 돋고 협력하며, 장로들과 더불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협의회가 되도록 함께 걸어가자”고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감사패 증정과 칭찬 기 전달이 있었으며, 아리랑 합창단의 축가와 함께 심상은 목사(OC교협의회 이사장), 황인철 목사(흘러톤장로교회 담임)가 권

면을 했다. 취임자를 위한 기도는 한기홍 목사가 맡았고, 축가는 권상욱 목사(은혜한인교회)가 했다. 이후 광고 및 내빈 소개, 찬양과 식사 기도, 단체 사진 촬영으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 했다.

황인철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말하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섬김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다. 이 자리에 모인 장로님들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기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보’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하며 “그러나 이 세상은 거룩한 바보들이 이끌어 왔다.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사라졌지만, 섬김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OC

장로협의회가 ‘바보들의 행진’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한다”고 전했다.

김은목 목사(남가주교협 회장)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성구를 좋아한다. 오늘 취임하신 모든 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이라 생각되어 축사를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된다. 새해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이 넘치기를 믿는다”고 했다.

토마스 맹 기자

## 퓨처처치 연구소장 명성훈 목사 초청 말씀집회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갈릴리 선교교회(한천영 목사)에서 1월 17(토)과 18(주일)까지 신년 말씀집회를 연다.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라는 슬로건으로, 가정교회 사역을 통해서 ‘신약교회 회복’과 ‘영 훈 구원하여 제자삼는 사역’에 힘쓰는 갈릴리선교교회에서, 전 성시교회 담임목사이며, 현 퓨처처치 연구소 소장인 명성훈 목사를 강사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이라는 주제로 집회가 진행된다.

명성훈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목사를 거쳐, 2005년 성시교회를 개척해 20년간 목회하고 지난 2025년 조기 은퇴했다. 현재 퓨처처치(Future Church)연구소장으로 한국 교회 사역에 방향을 제시하며 목회자들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서강대학교와 순복음신학교(현



한세대학교)와 감리교신학대학원 (Th. M.)을 졸업했고, 미국 풀러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M. Div.), 신학 석사(Th. M.), 철학 박사(Ph. D.) 학위를 받았다. 유학시절에는 LA 순복음중앙교회 부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개척, 벤엘 교회 설교목사, 베데스다 신학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지난 해 6월 ‘퓨처처치’를 출간

하며 “지극히 작은 교회라도 확실한 퓨처처치가 있다면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집회 일정: 1월 17-18(토-주일)  
토 오후 7시 (목적이 이끄는 교회)  
주일 오전 11시 (믿음이 강력한 교회)  
오후 1시 30분 (현신에 전념하는 교회)  
주소: 3721 Marmion Way LA CA 90065, 문의: 323-332-2350

## 사우스베이 목사회 신년하례예배

사우스베이 목사회는 1월 14일(수) 오전 8시 30분, 주님세운교회(신용환 목사)에서 2026년 신년하례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목사회 회장인 신용환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다. 신용환 목사는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신 목사는 설교를 통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인내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목회자의 자세를 강조했다.

이후 신년 덕담 시간에는 최학량 목사(뉴크리에이션교회)가 나서 새해를 맞이하는 목회자들에게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나라와 교회, 목회자와 가정을 위한 합심기도가 진행되며 참석자들은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



졌다. 광고 시간에는 2026년 목사회 임원단이 소개됐다. 회장 신용환 목사, 부회장(회계)이승혁 목사, 운영위원 신용환·이승혁·정홍길·김진주·남상권 목사가 사역을 맡는다. 또한 지난해 은퇴한 박성규 목사와 이종용 목사에게 감사패가 전달되며 그동안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사우스베이목사회 기사 제공

## 기독일보 창간 22주년을 축하합니다

**WORLD MISSION UNIVERSITY**  
TRANSFORMATIONAL BIBLICAL EDUCATION

#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공부한다

학위과정별 전공

준학사과정 | 기독교사역학, 기독교상담학

학사과정 | 기독교사역학(찬양과예배 전공, 크리스천상담코칭 전공), 사회복지학, 간호학(RN to BSN)

석사과정 | 목회학, 신학, 상담심리학, 음악학, 찬양과 예배, 글로벌리더십-코칭

석박사통합과정 | 신학 전공, 음악학 전공, 예배학 전공, 상담학 전공, 리더십과코칭 전공

박사과정 | 목회학, 음악연주학, 예배학, 실천신학(상담전공, 코칭전공, 목회와선교 전공)

다양한  
온오프라인  
학습방식

미국  
ATS 인가  
프로그램

온라인  
100% 트랙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ace, Los Angeles, CA 90020

문의: wmuinfo@wmu.edu | www.wmu.edu



홈페이지 QR

# 남가주 교회들, 예배와 사명으로 새해 영적 방향 제시

1월 둘째 주일(11일), 남가주 여러 교회에서는 새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었다.

가난한 이들의 양식, 기적의 씨앗이 되다 - 얼바인 베델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아 'Come & See 50(와서 보라)'을 주제로 엘리야 특별 부흥회를 연 얼바인 베델 교회에서는 뉴비전교회 이진수 목사가 오병이어 본문(요 6:8~13)을 통해 작은 헌신을 강조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당시 가난한 사람들의 초라한 양식이었다. 역사학자 필로의 기록과 헬라어 원어('옵사리온'opsarion)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작은 물고기)를 언급하며, "작고 천한 것이 주님께 드려질 때 기적의 씨앗이 된다"고 전했다. 이 목사는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복음의 통로가 된다고 권면했다.

장통면허가 되어버린 제자 양육의 은사를 꺼내라 - 얼바인온누리교회

얼바인온누리교회 박신웅 목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인생 위에 '믿음의 지도'와 '사명의 지도'를 그리고 계신다면, 2026년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길 소망했다.

"장통면허처럼 묵혀둔 제자 양육의 은사를 다시 꺼내라"며, 누군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삶이 예수님의 명령에 가장 직접적으로 순종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훈련한 2026년, 말씀의 '인풋'(In-



1월 둘째 주일(11일), 남가주 여러 교회 강단에서는 2026년 새해를 맞아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했다.

## put)'이 중요해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란의 반정부 시위, 미국 내 이민 단속 관련 총격 사건, 캘리포니아 홍수와 환태평양 조산대의 잇따른 지진 및 하와이 화산 분출 등 전 세계적인 재난과 사건들을 언급했다.

##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남가주사랑의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이원준 목사는 새해 비전선언 설교 시리즈에서 예배 공동체의 본질을 짚었다. 그는 콘텐츠로 가득 찬 현대 사회를 예배 공연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경배하며 살아가는지 질문했다.

우주의 광활함과 이사야서의 천상 예배 장면을 통해,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기쁨에 참여하는 초대라고 설명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로 인해, 성도들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예배 공동체라고 정의했다.

진 목사는 기록된 객관적 말씀인 '로고스(Logos)'가 개인에게 적용되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인 '레마(Rhema)'로 변화되는 과정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말씀이 내 안

에서 믿어지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감'을 잡은 사람들인데, 신앙생활의 핵심(감)은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정의했다.

##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남가주사랑의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이원준 목사는 새해 비전선언 설교 시리즈에서 예배 공동체의 본질을 짚었다. 그는 콘텐츠로 가득 찬 현대 사회를 예배 공연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경배하며 살아가는지 질문했다.

우주의 광활함과 이사야서의 천상 예배 장면을 통해,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기쁨에 참여하는 초대라고 설명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로 인해, 성도들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예배 공동체라고 정의했다.

2024년 사이 최소 24곳의 교회 건물이 방화 피해를 입었다.

보고서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등에서도 예배 공간 훼손, 성직자에 대한 신체적 공격, 예배 방해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이념적 적대감과 반종교적 극단주의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병역 거부 처벌과 제도적 압박… 종교 자유 논란 지속

보고서는 일부 OSCE 지역 국가들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종교적·윤리적 신념을 이유로 처벌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에서는 군 복무를 거부한 종교인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여신다 -나성영락교회

나성영락교회 박은성 목사는 지난 1월 11일 주일예배에서 '남은 자, 하나님의 기쁨(스바냐 3:14~17)'을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박 목사는 훈탁한 시대 속에서도 정직과 신실함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려는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신다고 역설했다.

박 목사는 밴더빌트 대학의 매디슨 사랫(Madison Sarratt) 교수의 일화를 소개했다. 사랫 교수는 학생들에게 "수학 시험과 정직 시험, 두 가지를 치른다. 만약 하나에 실패해야 한다면 부디 수학 시험이 되기를 바란다"고 가르쳤다. 박 목사는 "수학 성적은 일시적 성공을 주지만, 정직에 실패하면 평생 보람된 삶을 기대할 수 없다는 가르침이 학생들을 명품 인생으로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하나님은 시대의 흐름에 떠내

려가지 않고 남은 자들을 모으신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음 시대를 여신다. 인간의 역사는 대단한 경영인, 대단한 기업과 대단한 정치인에 의해서 다음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남겨 두신 사람들을 통해서 다음 시대가 열린다."

## 환경이 아닌 약속을 불들라 - 은혜한인교회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는 갈렙의 고백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를 통해 새해의 믿음의 태도를 제시했다. 갈렙이 편안한 땅이 아니라 헤브론을 선택한 것을 두고, "신앙은 안주 아니라 사명에 응답하는 선택"이라며, 삶의 현장에 놓인 여러 도전과 과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 내딛을 것을 권면했다. 그는 믿음이 말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결단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가 개인과 가정, 일터 가운데 드러난다고 설교를 맺었다.

주디 한 기자

→ 1면 기사 <종교 박해>에 이어서 특히 북유럽 국가 가운데서는 핀란드만이 2023년 이후 기독교 혐오 범죄 통계를 공식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통계 공백이 문제의 심각성을 가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역시 교회와 기독교 시설을 대상으로 한 훼손과 공격 사례가 눈에 띄게 늘었지만, 연방 정부 차원의 공식 통계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민사회 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 피해 규모는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유럽 각국, 교회 훼손과 방화 사건 잇따라

CDI는 미국 가톨릭주교회의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교회 자산을 겨냥한 공격이 56건 발생했다고 집계했으며, 2025년 1월부터 6월 사이에도 추가로 19건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2025년 5월 6일에는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교회 제단에서 폭발물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2024년 10월에는 매사추세츠, 애리조나, 플로리다 등지에서 교회 방화 사건이 잇따랐다.

유럽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확인됐다. 프랑스에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약 1천 건의 반기독교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리스에서는 600 건 이상의 교회 훼손 사례가 보고됐다. 캐나다의 경우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최소 24곳의 교회 건물이 방화 피해를 입었다.

보고서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등에서도 예배 공간 훼손, 성직자에 대한 신체적 공격, 예배 방해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이념적 적대감과 반종교적 극단주의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병역 거부 처벌과 제도적 압박… 종교 자유 논란 지속

보고서는 일부 OSCE 지역 국가들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종교적·윤리적 신념을 이유로 처벌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에서는 군 복무를 거부한 종교인

들이 수감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튀르키예에서는 종교 단체들이 예배와 표현의 자유, 법적 평등과 관련해 체계적인 제한을 받고 있다고 평가됐다. 서구 민주국가로 분류되는 벨기에 역시 종교 기관에 대한 법적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벨

기애에서 신앙 기반 기관들이 낙태나 조력 사망 서비스 제공을 요구 받고 있으며, 여성 성직자 안수를 거부한 종교 지도자들이 제재를 받은 사례도 언급했다.

## 호주·태평양 지역도 예외 아냐… 종교의 공적 역할 논쟁

CDI는 호주에서 전통적으로 종

교 자유가 보호돼 온 국가로 평가되지만, 최근 일부 주 정부가 신앙 기반 의료기관에 대해 신념과 충돌하는 의료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연계하도록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

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 주 정부가 낙태 제공을 거부한 가톨릭 병원을 몰수한 사례를 문제 사례로 제시했다.

또한 호주의 나우루 해외 수용소 운영과 관련해, 종교 박해를 피해 도망친 난민들이 장기간 비인도적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2024년 11월 기준 나우루에는 100명 이상의 난민이 수용돼 있으며, 이는 2013년 이후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밤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이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혐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주)대원 전자동 시설로 만든 왕김밥 4종**

새우튀김 김밥/매운 오징어 김밥/찰진 김밥/야채 김밥

**교회 스페셜 무료 딜리버리**

10pcs 한줄 \$4.50 60줄 이상 주문가격

**주문의 949-330-9033**

**Serge PRESENTS GCL을 개발한 Serge팀이 함께 합니다.**

**복음 중심의 삶 콘퍼런스 GCL conference GOSPEL CENTERED LIFE**

**ALL NATIONS CHURCH**

**복음 중심의 삶 콘퍼런스 GCL conference GOSPEL CENTERED LIFE**

**ALL NATIONS CHURCH**

**ANC 창립 30 주년 기념**

1996 ★★★★ 2026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복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고민이 되시나요?**

**Jan. 24, 2026 / ANC 온누리교회 본당**

8:00am-4:30pm / 점심 제공

**복음 중심의 삶 콘퍼런스 (Gospel-Centered Life Conference)는  
어떻게 매일의 삶에서 복음 중심으로 살 수 있는지를 나눕니다.  
복음 중심적인 삶에 관심이 있다면, 컨퍼런스에 등록하세요!**

문의: ANC 온누리교회 (818-834-7000) / [www.anconnuri.com](http://www.anconnuri.com)

**ANC 온누리교회**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 센터메디컬그룹

변진섭 코서트

의사망향

2.27.2026, FRI, 8PM  
YAAMAVA THEATER

혜택 대상: 센터메디컬그룹 회원과 가족  
예약 문의: 888-847-3098 (9 AM - 5 PM)

본 공연 티켓은 사전 예약자에 한해 제공됩니다.  
No-show를 하실 경우, 향후 공연 및 행사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이전호 “복음으로 진검승부해야 할 때”에 이어서]  
-목사님께서는 총신대학교에서 신학과 설교를 가르치시던 자리에서 이민교회 담임목회로 오셨습니다. ‘신학이 목회 현장에서 가장 힘을 발휘했다’고 느끼신 지점과, 개혁신학이 목회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개혁신학의 출발은 성경 말씀을 진리로 그대로 믿는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유일성, 세계선교를 향해 부름 받았다는 확실한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들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학으로만 머물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신학은 책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겹증되고 실천되어야 올바른 신학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을 삶에 스며들게 적용하는 것이 설교이고, 설교가 지향하는 것은 삶의 변화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올바른 성경적 개혁신학이 바르게 선포되면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는 종체적 변화로 이어집니다. 직업관과 일터관, 노동관, 가족관, 물질관까지 변화를 일으켜 결국 사회도 정화시키는 힘을 낸다고 믿습니다. 저는 교수와 목회 사이의 거리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목회를 했을 때 신학과 본질적인 측면에 있어 그 고리를 잘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솔직한 제 답변입니다.

-이민교회를 경험하시며, 이민 교회 특유의 ‘삶의 무게’와 관련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신 지점은 무엇입니까?

이민교회는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이민자의 삶의 문제, 소수자로서의 아픔, 자녀 세대와의 고리, 뿌리를 뽑아낸 삶의 불안정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관심이 삶의 문제로 쏠리기 쉽습니다. 초기 이민교회 시대에는 공항에 도착하는 한인들의 라이드부터 은행 업무, 식사 제공까지 교회가 삶의 애환을 달래는 역할을 크게 감당했던 때도 있었고, 그 시대에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본문(Text)’과 ‘상황(Context)’을 이야기할 때, Context가 너무 무거워져 Text를 지배해 버리면 교회의 본질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삶과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민감해야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역사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이민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가장 깊은 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민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가장 깊은 길은 단순히 위로와 돌봄에 만 있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보듬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의 해답이고, 이보다 더 깊은 위로가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또 이민교회에는 생존의 문제가 크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자립 교회가 많고 렌트를 내며 벼여야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게 되고, 그것이 개교회주의로 흐르는 현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목회자의 당당함, 복음 앞에서 누리는 만족,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복음을 해석하게 두지 않고, 복음이 현실 속으로 끊고 들어가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와싱턴중앙장로교회가 말씀 중심 교회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 근거를 여쭙고 싶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찾는 방식도 예전과 달라졌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요즘은 과거처럼 한국 사람을 만나기 위해, 혹은 한국 음식을 먹기 위해 교회에 오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성도들은 ‘왜 교회에 가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기 위해 간다”고 답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복음에 대한 신실한 선포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와싱턴중앙장로교회의 평균 연령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현재는 새가족 가운데 가장 많은 연령층이 30대와 40대가 되었습니다.

30~40대가 교회의 중심 세대가 됐습니다. 50대가 중심이었던 교회가 약 10여 년 사이에 이렇게 변화한 것입니다.

-평균 연령이 낮아진다는 점은 이민 교회의 방향성을 점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무엇이 그 흐름을 만들었다고 보시는지 별도로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평균 연령이 낮아지는 부분은 저 또한 매우 고무적으로 생

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변화에 가장 크게 작용한 요소를 꼽자면, 첫째는 순수한 복음에 대한 신실한 선포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바르게 배우려는 목적으로 교회를 찾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신뢰입니다. 저희는 주일학교를 ‘프라미스랜드’라고 부르는데, 주일학교 사역과 중고등부 사역을 포함한 다음 세대 사역을 비교적 잘 감당해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니 30~40대 부모들이 ‘아이를 맡겨도 좋겠다’는 신뢰를 가지게 되고, 그 신뢰가 젊은 세대 유입으로 연결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30~40대가 오고, 주일학교 사역이 자리 잡고, 그 신뢰가 더 많은 30~40대를 부르는 흐름이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런 젊은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젊은이들을 품기 위해서는 그런 감각이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저희 교회 또한 부목사님들은 젊고 감각이 있는 분들로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가 실행하고 있는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과 앞서가는 감각들은 제가 아니라 다 이런 분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과 관련해 많은 이민교회가 ‘한 지붕 두 가족’ 구조의 한계를 겪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영어권 사역을 어떤 철학으로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는 영어권을 ‘영어 목회(English Ministry)’로만 보지 않고 ‘영어 회중(English Congregation)’으로 봅니다. 이름도 이전에 EM에서 지금은 EC로 부릅니다. 영어권을 하나의 ‘부서’가 아니라 ‘회중’으로 보는 시각 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영어권을 따로 떼어 “너희 문화, 너희 언어, 너희 예배로 알아서 하라”는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것은 존중하지만,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교회라는 원칙 아래 ‘원처치 모델(One Church model)’로 한 방향을 공유합니다.

-언어·정체성 문제는 어떻게 풀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글 교육과 리더십 선출, 공동의회 운영 등 실제 운영 방식까지 포함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언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글 교육을 중요하게 봅니다. 주일학교는 유치부~1학년까지는 한글 중심으로 가고, 2~3학년부터는 영어 중

심으로 전환하는 편입니다. 아이들이 한국어를 익히면 부모, 조부모와 소통이 가능해지고, 신앙 유산을 잊는 데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시에 다른 언어를 하나 더 갖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가면 월급도 더 많이 받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언어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이 실제 삶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또 영어권 회중을 ‘파로’ 분리해서 대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리더십 선출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영어권 앤수집사와 장로도 계속 세워지고, 공동의회 역시 구분 없이 전체가 함께 참여합니다. 이런 구조가 ‘한 교회’로 서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팬데믹 시기에 교회가 선교사 지원, 지역 교회 지원, 영상 사역 강화 등 굉장히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선택을 가능하게 한 내적 기준과 판단의 근원은 무엇이었습니까?

팬데믹 때 저희가 했던 사역 가운데 하나는 ‘안전 선교 백신 프로젝트(Safe Missions Vaccine Project)’였습니다. 당시 선교사님들이 백신을 맞지 못하고 고립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초청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체류 기간 동안 성도 가정, 호텔, 기도원 등을 열어 숙박을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한 분당 천 달러 정도씩 비행기 비용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백신을 두 번 맞아야 하니 2~3주 머무르는 과정에서 밤낮으로 그 분들을 섬기기에 힘썼습니다.

또 한인세계선교대회(KWMC)는 원래 4년마다 대학에서 열리는데 팬데믹으로 대학이 문을 닫으면서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6년 만에 교회에서 진행하기로 본부에서 결정하고, 저희 교회에 부탁해 왔을 때, 당회에서는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저희가 섬기기로 결정하고 훈신의 힘을 다해 섬겼습니다.

보통 4~5천 명이 모이는 자리인데 그때는 2천 명 규모로 진행됐고, 교회에서 많은 재정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0명 이상의 성도들이 그 기간 전적으로 휴가를 내고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올해 여름 선교는 한인세계선교대회와 함께”라는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을 집중적으로 섬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행기 등 이동하는 과정에서 코로나가 확진된 분들이 생기기도 했는데, 끝까지 책임 있게 섬기려 애썼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확진된 선교사님들을 차량으로 모셔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교회 밖

에서 영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지역 교회를 위해서는 “한 교회도 문닫지 않게 하자”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보냄 받은 교회(The Sent)’라는 정체성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지역 62개 교회에 두 달 치 임대료를 지원했습니다. 저희도 재정적으로 쉽지 않았지만 큰 결단이었습니다. 아쉬웠던 부분은 그 때 팬데믹이 그렇게 오래갈지 모르고 단기적으로 밖에 지원을 못했던 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때의 도움을 기억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효과적인 복음 사역을 위해 영상 사역을 강화했습니다.

주일학교부터 시작해 성도들이 집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지 않도록 매일 여러 형태의 컨텐츠를 제공했고, 매주 여러 차례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넷플릭스(Netflix)와 경쟁하려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상의 완성도와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전교역자와, 관련 직원들이 몰입해 ‘올인’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팬데믹은 전통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실 때, 가장 염려되는 신학적·목회적 흐름 하나를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신학교가 교회의 씨앗이라고 봅니다. 목회는 결국 신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절대무오를 믿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들고, 세계 선교를 향한 부르심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신학적 토대가 회복돼야 한다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며 신앙보다 잘못된 신학이 신앙을 지배하게 되는 흐름은 경계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를 찾는 이유가 옛날과 다릅니다. 진리를 궁금해하는 시대입니다. 젊은 세대는 가벼운 복음이나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말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진리의 복음이 사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용사들을 세운다고 믿습니다. 복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선포해야 할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미주 한인교회가 한국교회보다 먼저 겪는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민교회는 미국 교단들이 복음에서 이탈하는 현실을 더 가까이에서 체감합니다. 또 다음 세대 이슈, 특히 부모와의 단절 문제도 이민교회가 더 앞서 겪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한국교회에 경고가 되거나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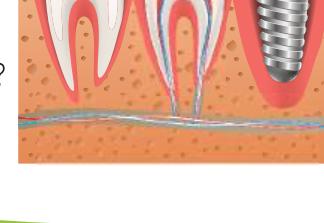
##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의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평생건강을  
좌우하는  
한번의 선택”

부모님께 맞는 의사부터  
부모님이 찾는 병원까지

SMG에  
있습니다

홍보대사 고두심



SMG 연계 병원

UCLA, 시더스-사이나이, 할리우드 장로병원, 세인트 주드,  
세인트 조셉, 애너하임 리저널, PIH 굿사마리탄



SMG 연계 보험사

얼라인먼트, 앤섬, 블루쉴드, 클레버케어, 휴매나, 헬스넷,  
몰리나/센트럴헬스, 스캔, UCLA 어드벤티지, 유나이티드, 웰케어

서울메디칼그룹이 5,500명의 의사와  
우수한 병원 네트워크와 함께  
**당신의 건강을 지켜 드립니다**

문의전화 **800.611.9862**

**SMG**  
서울메디칼그룹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카카오채널에  
방문하세요!

이 광고에서 사용된 자표는 SMG가 2025년에 남가주 지역의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 네트워크 규모에 대해 조사한 내부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보험과 함께 독립된 의사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혜택과 네트워크 규모는 각각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헬스 플랜과 지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의료 서비스는 건강보험에 따라 제한, 제외, 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메디칼그룹 800-611-9862로 문의하십시오.

#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은 부활의 새벽을 준비한다"

남가주새누리교회, 새해맞이 특별새벽기도회 개최

남가주새누리교회가 새해를 맞아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오전 5시 15분, 미션센터에서 특별새벽기도회를 개최했다. 10일 예배에서는 박성근 목사가 시편 46편 1~11절 말씀을 본문, '믿음으로 달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성근 목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밤을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오도록 창조하셨다"며 "어둠은 끝이 아니라 밝은 날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기독교는 새벽의 종교라 새벽에 주 앞에 나오면 도움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많다. 야곱도 브니엘의 아침에 변화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활 사건을 '새벽의 사건'으로 강조하며, "십자가의 죽음 이후 하나님은 부활의 새벽을 준비하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



10일 예배에서는 박성근 목사가 시편 46편 1~11절 말씀을 본문, '믿음으로 달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시편 46편 9~10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전쟁을 쉬게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싸움을 멈추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하신다는 선언"이라며 "아무리 대적이 달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어려움을 이길수 있다. 하나님은 대신 싸워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야 한다"고 했다. 설교 중에는 히틀러 시대를 살았던 독일 신학자의 일화도 소개됐다. 그는 "악이 세상을 뒤덮은 것처럼 보이던 시대, 교회에서 들려온 마틴 루터의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통해 참된 능력을 인간의 물리적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 가운데 소요와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때 함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새벽을 준비하시고, 승리를 예비하신다"며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2026년 믿음으로 달려나가길 바란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모두가 축복의 시간을 경험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토마스 맹 기자

## NFL 볼티모어 레이븐스 러닝백,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NFL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아쉽게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다고 7일 보도했다. 레이븐스는 지난 4일 피츠버그 스틸러스와의 라이벌전에서 종료 직전 시도한 필드골이 빗나가며 포스트시즌 진출 기회를 놓쳤다. 경기의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순간은 루키 키커 타일러 루프 선수의 발끝에서 같았다.

이번 패배 이후 팀 내에서는 좌절감이 짙게 드리워졌지만, 베테랑 러닝백 데릭 헨리 선수는 경기 후 루프에게 신앙에 기반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데릭 헨리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두지 않으신다"**

데릭 헨리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루프와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그는 "타일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 느껴진다"며 "오늘과 내일은 이 감정을 충분히 받아들이되, 해는 다시 떠

오를 것이라는 점을 전해줬다"고 말했다.

헨리는 이어 "이후의 이야기는 오히려 더 위대해질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그를 이 자리에 두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역경을 통해 사용하시려는 뜻이 있고, 그가 이 상황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사람을 두지 않으신다"며 현재의 고통이 결국 의미 있는 과정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정적인 루키 시즌에도 남은 결정적 한 장면**

CP는 타일러 루프가 2025년 NFL 드래프트 6라운드에서 레이븐스에 지명된 24세 루키 키커라고 밝혔다. 그는 데뷔 시즌 동안 총 34차례 필드골 시도 중 30개를 성공시키며 비교적 안정적인 활약을 펼쳤다. 특히 40~49야드 구간에서는 한 차례도 실축 없이 완벽한 성

공률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시도한 44야드 필드골이 빗나가며 그 기록은 멈췄고, 이 한 번의 실축은 팀의 플레이오프 탈락으로 직결됐다. 루프에게는 개인 커리어 초반 가장 빼아픈 순간으로 남게 됐다.

**타일러 루프 "로마서 8장 말씀이 나를 불잡았다"**

루프 역시 경기 후 자신의 신앙이 이번 패배를 받아들이는 데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전 미리 적어둔 짧은 기도문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다고 전했다. 루프는 "신앙은 내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요즘 로마서 8장을 읽고 있는데,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큰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궁극적으로 내가 이



NFL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베테랑 러닝백 데릭 헨리 선수 ©Screenshot/YouTube/Baltimore Ravens

자리에 있는 이유는 동료들을 사랑하고, 팀을 위해 헌신하며, 받은 재능을 잘 관리하는 데 있다"며 "볼티모어라는 팀과 이곳에 오게 된 것 자체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불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계속 상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동료들의 연대 "준비는 우리가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수비수 알로하 길면 선수 역시 루프를 향한 조언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언급했다. 길면은 "나 역시 플레이오프에서 힘든 패배와 실수를 겪어봤다"며 "준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 이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연 기자

## 사랑의교회, 윤대혁 목사…공동의회서 98.88% 찬성

사랑의교회는 1월 11일 4차례 주일예배 가운데 제3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했다. 세례교인 이상 교인들이 참여한 투표 결과 98.88%가 청빙위원회에서 추천한 윤대혁 목사(美 LA 사랑의빛선교교회) 청빙에 동의, 결의 기준인 3분의 2 이상을 무난히 넘겼다.

사랑의교회 당회는 지난 2025년 11월 16일 청빙위원회에서 추천한 윤대혁 목사를 3대 담임목사(위임목사)로 청빙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전날인 10일 열린 제직회에서도 청빙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윤대혁 목사는 오는 2027년 1월부터 사랑의교회 3대 담임목사(위임목사)로 시무하게 된다. 이대웅 기자

##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맹창현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합니다.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www.btssolardesign.com](http://www.btssolardesign.com)



SCAN ME

\*전기세 50~90% 절감\*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5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LA 213.500.8000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OC 714.702.0151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 미·콜롬비아 외교 재개 국면 속 국가 금식·기도의 날 선포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콜롬비아의 주요 복음주의 연합체가 콜롬비아와 미국 간 외교적 대화가 재개되는 시점에 맞춰 전국적인 금식과 기도의 날을 선포했다고 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콜롬비아복음주의연맹(CEDECOL)은 금요일을 국가 금식·기도의 날로 지정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라의 평화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CEDECOL은 이번 기도 요청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기점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장시간의 전화 통화를 통해 외교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양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연맹은 성명을 통해 콜롬비아 전역의 교회와 신자들이 한마음으로 금식과 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CEDECOL은 국가 지도력과 치안 문제, 사회적 안정과 관련한 기도 제목을 제시하며, 신앙 공동체가 이 시기에 영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할 때 나라를 향한 방향과 회복이 주어진다는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 미·콜롬비아 정상 통화 이후 외교 재개 움직임 본격화

CDI는 이번 기도 선포는 페트로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1시간이 넘는 전화 통화 직후 발표됐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해당 통화가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으며, 향후 워싱턴에서 직접 회동을 갖고 마약 밀매 문제와 양국 간 긴장 요소를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페트로 대통령이 직접 연락해 콜롬비아의 마약 정책과 양국 간 이견에 대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가 긍정적이었다고 언급하며, 외교적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페트로 대통령 역시 이번 통화에서 자국 정부의 조직범죄 대응 노력을 설명했으며, 미국 내에서 형성된 콜롬비아에 대

한 인식이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형성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외교 관계에서 사실과 진실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이번 대화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 복음주의 진영, 정치 상황 속 영적 대응 필요성 강조

CDI는 정치권이 대화를 통한 협력을 모색하는 가운데, 콜롬비아 복음주의 진영은 이 시기를 영적 성찰과 연합의 시간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CEDECOL은 국가의 주요 결정들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신앙 공동체가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특히 지역 안보와 국내 평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교회가 기도와 금식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국가 금식·기도의 날은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한 중보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 페트로 대통령, 외교와 국내 개혁에 대한 입장 재확인

페트로 대통령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보고타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국제 관계에서 진실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최근 콜롬비아를 둘러싼 일부 발언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에 근거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인식이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또한 페트로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부가 평화와 사회 정의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제 협력과 외교적 대화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롬비아 복음주의연맹은 “이번 국가 금식·기도의 날을 통해 교회와 사회가 함께 면밀히 서로의 방향을 돌아보고, 향후 외교와 안보, 사회 안정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승연 기자

## 이란, 성탄절 전후 기독교인 수감·소환 잇따라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이란에서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성탄절을 전후해 잇따라 수감되거나 형 집행을 통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10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란 내 종교 자유 상황을 모니터링해 온 인권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개종 기독교인과 가정교회 활동을 겪고 있는 탄압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이란 종교 자유 옹호 단체 ‘아티클 18(Article 18)’은 최근 성명을 통해,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기독교인 3명이 지난 12월 중순 이후 실제로 수감되거나 형 집행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한 여성 기독교인은 성탄절을 불과 이를 앞두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아티클18에 따르면, 나예레 아르자네(Nayerah Arjaneh)는 7월 7일 남편과 함께 가름사르(Garmsar)의 자택에서 체포된 뒤, 12월 23일 세만난(Semnan) 교도소에 수감돼 형 집행을 시작했다. 그는 ‘이슬람 율법에 반하는 일탈적 선전과 가르침을 확산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고 외부에 드러냈다는 이유라고 단체는 설명했다. 아르자네는 총 1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란 법률에 따라 가장 중한 형인 5년의 실형만 집행된다. 그는 2025년 터키에서 열린 기독교 세미나에 참석한 뒤 체포된 개종 기독교인 가운데 한 명으로, 무조건적인 5년형 외에도 1억6500만 토만의 벌금, 케르만 주 쿠흐바난으로의 2년간 국내 추방, 2년간 출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시오니스트 기독교 단체와 연계된 단체에 재정·물질적 지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추가 5년형과 벌금 형도 선고됐다. 다만 종교적 신성 모독

최승연 기자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영혼의 생 내적치유 영성집회  
월~금 오후 7:30  
청년기성경부 주일 오후 2:00  
-로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송회처럼 순결하고 소니무처럼 뜰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말씀과 삶 공부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토) 오전 6:3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세번기도회(화~금)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모로 새울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번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친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예배: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주일예배: 아침 8:00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예배: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예배 예배 세벽 6:30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종 담임목사

LA장로교회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407-1600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choonghyun.org

주일예배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성공부 오후 7:30

김은광 목사 백승우 목사

우리가교회

성도원 우리가 교회입니다

3435 Wilshire Blvd. # 570(F), L.A, CA 90010  
T. (323) 610-6989, www.woorigach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사우스 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영성기도회 오후 7:00  
3부EV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6:30(월~금)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cs.com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224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후 6:00(월~토)  
중/어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파송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후 6:00  
EM 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길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 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가명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서 드리집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encecgcc.org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종교동부 오전 11:00 방상용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6:00  
주일학교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융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성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1부 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9:30 장막예배 오전 11:30  
3부 예배 오전 11:30 영어찬양부 오후 9:30, 11:30  
한국어대학원대학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성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yfirstchurch.org

1부 예배 오전 7:00 성인예배 오후 9:00, 오후 11:00  
2부 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후 9:00, 오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 예배 오전 7:30 주중새벽기도회 오후 5:30(월~금)  
2부 예배 오전 9:15 토요일찬양예배 오후 6:00  
3부 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저녁 7: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11:00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 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un@hanmail.net

1부 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 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후 5:30  
영어예배 오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예수의 은혜로 세상을 위탁하는 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종교동부 오전 11:40 우영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경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후 5:20(월~금)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성 12:2-3)

5540 Schaef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후 5:30  
영어예배 오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종교동부 오전 11:40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여가는 교회

17175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밀집강해 오후 7:3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오전 6:00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종교동부 오전 11:40 최원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6: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오전 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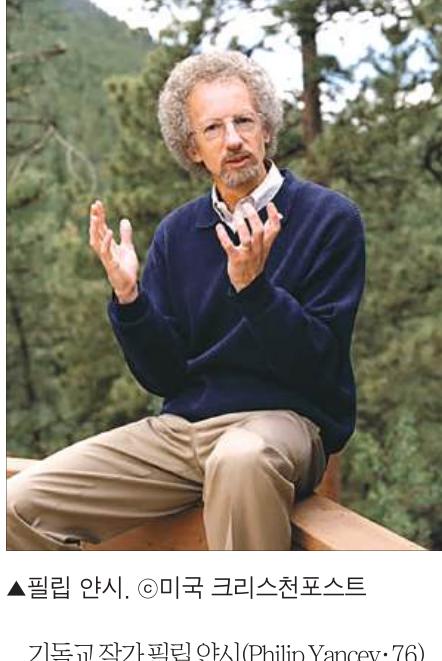
인랜드교회

예수의 은혜로 세상을 만들여가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 필립 양시, 불륜 고백 후 공적 사역 은퇴 선언



▲필립 양시.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기독교 작가 필립 양시(Philip Yancey·76)가 8년간 기혼 여성과 불륜 관계를 유지해 웃음을 고백하며 목회 사역과 글쓰기, 강연 활동에서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양시는 최근 한 기독교 매체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저는 크게 부끄럽게도 8년 동안 기혼 여성과 죄악스러운 관계를 맺었다”며 “제 행동은 결혼에 대해 제가 믿는 모든 것을 거스르는 것이었고, 제 신앙과 글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이 아내와 가족, 상대 여성의 남편, 그리고 독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고 했다.

양시는 “저는 하나님과 아내 앞에서 죄를 고백했고, 전문적인 상담과 책임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며 “저는 도덕적·영적으로 실패했고, 제가 초래한

파괴에 대해 슬퍼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55년간 이어온 결혼 생활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독교 사역에서 자격이 박탈됐기에 글쓰기, 강연, 소셜미디어에서 은퇴한다. 대신 남은 세월을 이미 쓴 글에 걸맞게 살아가야 한다”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그리고 제가 상처 입힌 이들의 삶에서 치유가 있길 기도 한다”고 말했다. 아내 자넷 양시(Janet Yancey)는 성명을 통해 “저는 배신을 겪은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트라우마와 절망의 자리에 있다”며 “그러나 저는 55년 반 전에 신성하고 구속력 있는 결혼 서약을 했고, 그 약속을 깨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죄, 특히 필립의 죄를 대가로 치르고 용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며 “저에게도 용서할 은혜를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1971년 캠퍼스 라이프 잡지에서 작가 경력을 시작한 양시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탐구하는 글을 꾸준히 발표해 왔으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포함해 1,500만 부 이상의 책이 판매되는 등 전 세계 독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는 2023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후 병의 경과와 아내의 돌봄에 대해 글로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공개 강연을 해 왔다. 현재 그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삭제된 상태다. 강혜진 기자

# 맘다니 뉴욕시장, 취임식서 꾸란 선서와 집단주의 발언 논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X/ Zohran Mamda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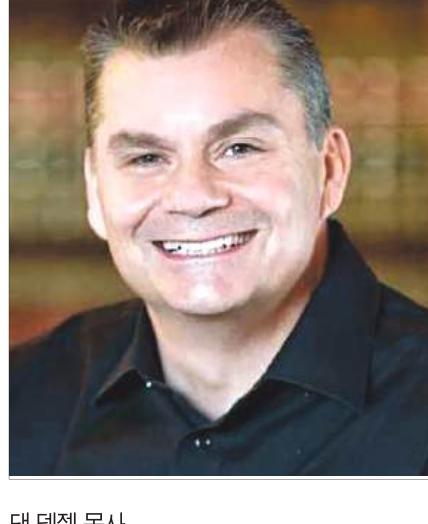
미국 뉴욕시의 새 시장 조란 맘다니

## 삶이 무너질 때에도 무너지지 않는 소망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인 로빈 슈마허의 기고글인 '우리가 복음으로 오해하는 약속'(The promise we mistake for the Gospel) 12일(현지시각) 게재했다.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하고 있는 슈마허는 작가로도 활동하면서 많은 책을 냈고 미국 내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오래전, 필자는 지금까지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눈부신 그리스도인 여성 가운데 한 사람의 삶을 지켜본 적이 있다. 정말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고, 탁월한 아내이자 사랑받는 어머니였으며, 본인 스스로는 미처 다 알지 못했을 만큼 넓은 영향력을 끼친 성경 교사였다. 말 그대로 현대판 잠언 31장의 여인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녀는 암 진단을 받았다. 누구나 예상하듯, 그녀는 매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 오던 사람이었기에 그 진단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다. 교회는 그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고, 치유를 위한 기도가 밤낮없이 이어졌다. 그녀 역시 닥쳐오는 모든 상황



댄 델젤 목사.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 비록 육체적 상태는 점점 악화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필자를 포함해 그 누구도 나쁜 결말을 예상하지는 않았다.

그러다 의사가 그녀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한 날이 왔다. 그녀는 의사의 말을 차분히 들은 뒤, 평소의 그녀다운 태도로 그 예후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자신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흘 뒤, 그녀는 세상을 떠났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필자의 머릿속에 강렬하게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었다.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안전하지 않다면, 우리 중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그 생각은 필자를 깊은 두려움에 빠뜨렸다.

어떤 이들은 이런 반응을 두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나무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달치 월급을 걸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역시 인생의 어느 순간,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밭밀의 바닥이 갑자기 꺼져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확신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말이다.

우리 문화의 분위기 역시 이런 불안을 키운다. 우리는 안전에 집착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감정적·재정적·신체적·사회적·심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배운다. 좋은 삶이란 보호받는 삶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평안한가? 교회 안에서도 불안 장애는 증가하고 있고, 외로움은 만연하며, 우울과 절망은 연령과 이념, 경제적 계층을 가리지 않고 퍼져 있다. 그 어느 세대보다도 많은 외적·내적 안전장치를 구축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깊은 불안 속에 있다.

팀 켄리는 이러한 상태를, 마치 영화 「조스」의 배경음악이 하루 종일 귀에 울리고, 우리는 언제 나타날지 모를 상어 지느러미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필자 역시 그런 감정을 수도 없이 느껴왔다.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 온 이들이라면, 기독교가 이 모든 문제에 대해 불편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기독교는 우리가 흔히 머릿속에 그리는 방식의 '안전한 삶'을 약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지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감정적으로나 실제 삶에서는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안식하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이라고 착각해 온 약속 때문이다. 곧 기독교란 삶을 더 쉽고, 더 평온하며, 더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종교라는 생각이다. 솔직히 말해 보자. 우리도 때때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필자 역시 그렇다.

그러나 고난은 반드시 찾아온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시험대에 오르고, 두려움은 커진다. 이어서 '기독교가 참이라면, 나는 왜 이렇게 두려운가?'라는 자책감이 뒤따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가? 집 안의 온도조절기를 고정해 놓듯,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한 번의 영적 돌파로 영구 설정해야 하는가?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필자에게 오랫동안 도움이 되어 준 것은 히브리서 11장의 한 대목으로 돌아가는 일이었다. 4절부터 35절까지는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경험한 놀라운 승리들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기대하고, 솔직히 말해 누리고 싶어 하는 바로 그런 승리들이다. 그러나 이어지는 구절들은 같은 유형의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텁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의 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느니라"(히 11:36-39).

이 구절들이 필자의 두려움을 처음으로 들어 올려 준 순간은, 첫 번째 아내가 매우 젊은 나이에 허귀한 갑상선암으로 세상을 떠난 직후였다. 그녀 역시 앞서 언급한 그 여성처럼 모든 이에게 사랑받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끔찍한 일들을 겪었다.

필자는 어두운 침실에 훌로 앉아 있으면서, 이 세상에는 어떤 안전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비로소 실감했다. 그리고 그때, 어찌면 기독교가 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만약 기독교가 참이라면, 내가 왜 이렇게 훌어나가되어 앉아 있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말해 준다. 그리고 그 진리는 가장 필요했던 순간, 필자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성경 속 주요 인물들이 모두 상처 하나 없이 인생을 살아가다 엘리야처럼 불말을 타고 하늘로 들려 올려졌다면, 필자는 성경을 쓰레기통에 던졌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는다. 성경은 정반대를 보여주며, 하나님을 우리의 편안함만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는 우주적 위험 관리자처럼 묘사하지 않는다. 대신, 하나님은 깨어진 세상 속으로 직접 들어와 고난을 피해 사람들을 구원하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자로 나타난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안전을 약속하지 않았으셨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요 16:33)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중심 설정은 방패가 아니라 십자가이다.

기독교적 소망이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인정하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는 우리가 한걸음 물러서서 다시 정리하고, 고난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받아들이게 한다. 고통 자체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속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참된 소망이 보호 속에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단련 속에서 빛어지며, 어둠 속에서 태어나 이 생을 넘어선 곳에 닻을 내린다고 말한다. 기독교는 안전을 약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속을 약속한다. 그리고 그 약속은 순교자와 애통하는 이들, 그리고 여러분과 필자 같은 평범한 신자들을 세상이 줄 수 있는 최악의 순간들 속에서도 견디게 해 왔다.

최승연 기자

###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침이기도회(미지역주) 오후 8:30 2부 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오후 5:20(화-금) 오후 6:00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김정성 담임목사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1부 07:30AM -1부 09:00AM -평일(월~금) 06:00AM  
-2부 09:15AM -2부 11:00AM -토요 예배 06:00AM  
-3부 11:00AM

###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gmcg.org

장수영 담임목사

대예배 11:00 AM Youth (6th ~ 12th) 11:00 AM  
이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학년)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church.com

강문수 담임목사

주일 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19 Email: joonim0623@gmail.com

최현규 담임목사

주일 예배 (KM) 오후 10:30 중고등부 (Youth) 오후 10:30  
주일 예배 (EM) 오후 10:30 대학령년부 (College) 오후 10:30  
위기부 (K-2) 오후 10:30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오후 9:40  
초등부 (3-5) 오후 10:30

주님 CHURCH

주일 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19 Email: joonim0623@gmail.com

유경재 담임목사

주일1부 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이기페스) 오후 11:00  
주일2부 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임금제세례) 오후 11:00  
유아유치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후 6:00  
초등부 오후 11:00 Youth(금모임금) 오후 7:30

###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했던교회

8756 Woodlawn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손창민 담임목사

주일1부 예배 8:00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2부 예배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어,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예배 8:00M 영어 예배 10:00  
금요예배 8:00M 새벽예배 6:00(화-토)

### 온혜와 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이충환 담임목사

주일1부 예배 오전 8:00M 금요성찬회 저녁 7:45  
주일2부 예배 오후 11:00M 새벽기도회 월-금 오후 5:30M 토-일 오후 6:0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1:00M 한인예배 오후 6:00M

### 발렌시아 샘물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이건창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2:30  
주일 EM 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후 6:00(화-토)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박성호 담임목사

주일 예배 1부 오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 예배 2부 오후 11:00 교육부 예배 주일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저녁 7:00

### 평강교회

주일 예배 11:00M  
주일 성경부 품으로는 삶 오후 9:30  
화요 3,3 기도회 매달 첫째주 오후 10:30 목요 TEE 암ivor Zoom 오후 7:30  
목요 기도회 오후 10:00 한인예배 오후 6:00

임인철 담임목사

주일 예배 1부 오후 9:45  
주일 예배 2부 오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후 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강일진 담임목사

주일 예배 1부 오후 8:15 (한국어)  
주일 예배 2부 오후 11: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 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1715 W Quenado Rd, Las Vegas, NV 89113)

###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송삼용 담임목사

주일 예배 1부 오후 2:00  
주일 예배 2부 오후 7:00  
주일 예배 3부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cc/index.php

이정환 담임목사

주일 예배 1부 오후 9:00  
주일 예배 2부 오후 11:00  
교육부 예배 오후 11:00  
수요예배(화-토) 오후

## 크리스천 비지니스

## CHRISTIAN BUSINESS

## Annie Moon

Insurance Ag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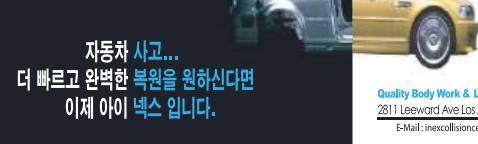
License #O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Inex**  
AUTOMOTIVE  
COLLISION CENTER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전문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앓기도 두렵고 때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초강력 정체제 \$70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청서이 한 가득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치즈 오반덕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OP PLUMBING SERVICE, INC.** License# 1139798

얼께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불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 LA북부한인회, 미주 한인의 날 선포식

1월 13일 미주 한인의날을 맞이하여 LA북부한인회(회장 박승목)는 글렌데일 시에서 한인의날 선포식을 했다. 시장과 시의원들에게 감사장을 주고 한인의날 선포식을 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LA북부한인회는 LA 북부 지역 한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비영리 단체로 지난 2011년에 설립되어 꾸준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 빛과 사랑의 교회 리종기 원로목사 세계 순회

광주빛과 사랑의 교회를 개척해 47년 동안 섬겨온 리종기 목사가 지난 성탄절을 기점으로 은퇴하고, 세계선교 순회선교사로 파송 받아 미주 지역 사역에 나섰다.

리 목사는 지난해 말 은퇴 이후 세계선교 순회선교사로 파송받아 미주 전역을 순회하며 설교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남기주에서는 지난 1월 3일 나성열린문교회 특별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4일 미주베톤 교회 신년감사예배, 7일 리스베가스 중앙교회 수요집회, 11일 함께 하는 교회 주일예배, 18일 미주양곡교회 주일예배에 이어, 같은 날 GAWPC 남가주노회 신년하례예배에서 말씀을 전할 예정이다.



뉴욕 일정도 예정돼 있다.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뉴욕 로고스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며,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는 뉴욕새생명 교회 설립 23주년 기념 및 신년축복성회 강사로 초청받았다. 이어 2

월 1일부터 8일까지는 애틀랜타와 플로리다 지역을 순회하며 전도 집회와 말씀 사역을 이어갈 계획이다.

리종기 목사는 한 교회를 47년간 섬기는 동안 가족 가운데 8명의 목사와 4명의 장로를 배출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직계 가족 중 아들과 사위가 같은 교단 목회자이지만, 교회 대물림을 하지 않고 선교사에게 담임을 이양한 결정은 한국 교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김민선 기자

## 크리스천 싱글 모임

크리스천 싱글들(25~39)을 위한 매칭 단체 HeavenMatched가 오는 1월 31일 오후 1시~4시까지 플러튼에서 모임을 갖는다.

이메일: searc@gmail.com

전화: 714-510-6585

HeavenMatched는 신앙 안에서 배우자를 찾고, 하나님에 디자인 하신 가정을 세우기 위한 단체이다. 프로그램은 스피드 미팅, AI 매칭 서비스, 리트리트으로 구성된다. 짹을 찾고 싶은 사람들이 자리에 옮겨가며 주어진 시간 동안 이성들과 대화를 나눈다. 참가자들에게 10분씩 주면서, 서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간다. 모임이 끝나면 서로에 대한 피드백을 나눈다. 리트리트은 2박 3일 정도 합숙하며 여러 액티비티, 학습 세션, 그룹 대화가 포함된다. 자연스레 우정을 쌓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인연을 만날 기회를 갖게 된다. Heavenmatched는 가입비나 고액의 멤버십 없이 운영된다.

## 소망소사이어티 죽음 준비 세미나

소망소사이어티가 오는 1월 18일 오후 2시 30분 부에나파크교회(Buena Park Church, 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에서 죽음준비 세미나를 연다.

유분자 소망소사이어티 이사장과 박줄리 교육부장이 강사로 선다. 유분자 이사장은 한국 미8군 KSC 병원 간호 과장, 대한적십자사 초대 간호 사업국장, 남가주 한인 간호협회 제2대 회장, 재미간호 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박줄리 교육부장은 메디케어 에이전트로, 치매와 웰 에이징에 대해 강의해 왔다.



세미나 일정  
1월 18일(주일) 오후 2:30  
주소: 70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 2026 미주기독대학박람회



## 신입생 모집

## 탈북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세계 최고의 교수진

카카오톡 채널: "탈북"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유튜브: "탈북신학교" 검색

심용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I-20) 발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종교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당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역 수료과정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성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for the Church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회(HLC &amp;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원"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 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금은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주지향적 교육을 주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라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고령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미국 종교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당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 전·후 SEVIS-I-20 신학회(HLC &amp; ATS 인가)

• 성경학 석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Azusa Pacific Universit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입학문의 671-(626)857-2200

www.apu.edu admissions@apu.edu

www.apu.edu

## 기독일보 창간 22주년 축사



박 기 호 원로교수  
풀러신학대

기독일보 창간 2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2년 전, 창간 예배 자리에서 누가

복음 2장 8-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기독언론이 균형 잡힌 보도를 해야 하지만, 가급적이면 독자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복음이 본래 세상에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기독일보의 걸음을 지켜보며, 저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져왔습니다. 창간 때부터 편집 고문을 맡아 오랫동안 함께 온 한 사람으로서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기독일보는 기독언론으로

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지 않았고, 무엇보다 미주 한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과 위로, 그리고 건강한 통찰을 제공하는 신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저는 두 가지 사역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다음세대가 말씀에 뿌리내리도록 성경을 필사하게 하고 장학금을 후원하는 그 귀한 사역은 이민사회와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일을 앞장서 감당하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둘째, 미주 한인 교회의 아름다운 생태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연결하고, 나눔과 후원이 서로 흘러가도록 플랫폼과 기회를 마련하신 일은 교계 전체를 살리는 값진

섬김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단순한 보도를 넘어 기독일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직접 참여하고 동역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기독일보가 지금까지 걸어온 방향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 교회와 이민자들이 땅끝 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과 세계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돋는 선교적 미디어로 계속 빛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창간 2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변영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론지(正論誌)’로서의 정체성 지켜와



김 은 목 목사  
남가주교협 56대 회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독일보가 지난 20년 동안 흔들림 없이 복음의 가치를 불들고, 시대를 향해 분명한 소리를 내는 기독 언

론으로서 온 것을 생각할 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언론은 단순히 소식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시대를 해석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공적 사명을 지닌 영역입니다. 특별히 기독 언론은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는 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일보는 지난 20년 동안 ‘정론지(正論誌)’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오며, 교회와 성도, 그리고 세상을 향해 복음적 관점을 담대히 전달해 왔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가치관은 끊임없이 흔들리며, 신앙마저도 상대화되고 변질되는 시대를 우리

교회는 종종 침묵을 강요받고, 진리는 불편한 것으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언론은 더욱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옳은 소리를, 유행이 아니라 진리를, 타협이 아니라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기독일보는 그 자리에서 지난 20년간 흔들림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해 왔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20주년을 기쁨으로 축하하는 이유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려 기독일보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이인규 목사님의 헌신과 사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는 언론 사역을 단순한 정보 전달의 영역이 아니라, 교회와 시대를 섬기는 선교적 사역으로 이해하시고 실천해 오셨습니다. 교회를 대변하면서도 진리를 흐

리지 않으며, 세상을 말하지만 복음의 본질을 잊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해 오신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기독일보가 앞으로도 교회와 함께 울고 웃으며, 시대 속에서 복음의 등불을 높이 드는 동역자로 서기를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지난 2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20년을 넘어 주님 오실때까지 동일한 은혜와 담대함으로 기독일보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독일보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인규 목사님과 모든 임직원, 기자 여러분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독일보 창간 22주년 축하 메시지



최 국 현 목사  
O.C 교회협의회 회장

미주 기독일보의 창간 2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2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기독 언론이라는 귀한 사명을 불들고 흔들림 없이 걸어오신 걸음을 함께 기뻐합니다. 한 장의 기사, 한 줄의 기록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시대를 밝히는 등 불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주 기독일보의 22년은 “신문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해 온 믿음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미주 기독일보는 남가주를 대표하는 신문으로서, 또한 지역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잇는 기독 언론으로서 큰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교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섬기지만, 때로는 서로의 소식을 알기 어렵고, 같은 도시 안에서도 외롭게 사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기독 언론은 단순히 정보를 전하는 일을 넘어, 교회를 연결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다리가 됩니다. 미주 기독일보가 그 다리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왔기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얻고 다시 걸어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오늘, “기록 문화”的 중요성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록은 그냥 글이 아닙니다. 기록은 기억을 지키고, 진실을 보존하며, 다음 세대에게 길을

알려주는 표지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 당신의 구원 역사와 약속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 주셨습니다. 기록이 있기에 우리는 잊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 언론의 기록은 시대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돋고, 교회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며, 믿음의 걸음을 남겨 미래로 전달하는 귀한 사역입니다. 또한 미주 기독일보는 한국 기독교 문화의 소중한 통로요 전파자입니다. 신앙의 뿌리를 가진 한국 교회와, 선교적 현장 속에 있는 미주 교회가 서로 배우고 격려하며 함께 자라가도록 돋는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이 통로가 더욱 깨끗하고, 더욱 넓고, 더욱 따뜻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한 말보다 진실한 이야기, 빠른 소식보다 바른 소식, 자극적인 제목보다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불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축하 메시지에

는 한 가지 간절한 부탁이 들어 있습니다. 미주 기독일보가 앞으로도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며, 아직 자립이 어려운 교회들까지 품어 주는 따뜻한 기독 언론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 알려진 사역만 비추는 빛이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골목길에서 묵묵히 섬기는 작은 공동체들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주십시오.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도, 사람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 현장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꼭 기록되어야 할 “복음의 자리”입니다. 창간 22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길에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 건강과 기쁨,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주 기독일보가 남가주와 미주 한인 교회들을 섬기는 귀한 등불로,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의 기록을 남기는 복된 사역으로 더욱 굳게 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 혜 영

## 안심하시고 믿고 맡겨주세요!

“2026” 달라지는 혜택, 많은 약 보험의 많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Annie Moon**이 필요하십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해 드립니다. 메디케어를 처음 받으실 분, 타주에서 이사 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 Disccaimer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40 Shatto Pl, #301., Los Angeles, CA 900200

**SMG**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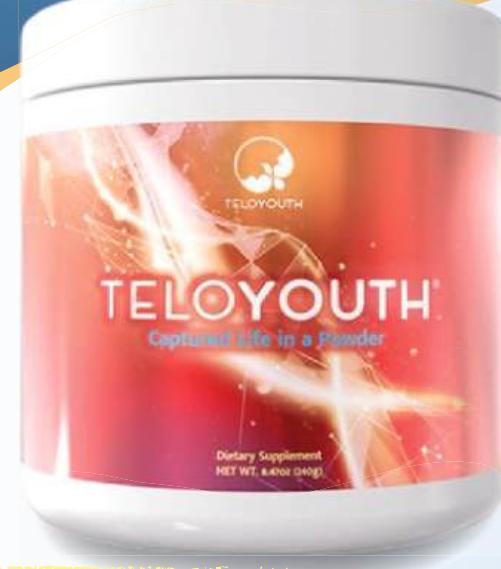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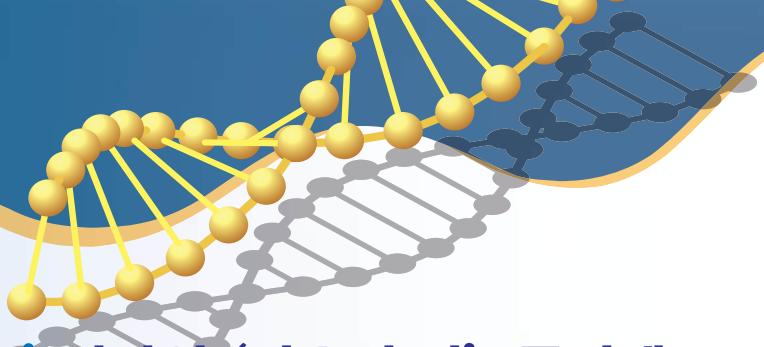


홍보대사  
고두심

# “노화를 막는 시대를 넘어, 회복의 시대가 왔습니다”

## 주요 라디오 · 신문이 주목한 텔로유스(TeloYouth) 젊음회복 프로그램

LA 라디오코리아, 라디오서울, 우리방송, CBS 기독교TV, NY 라디오코리아, NY K라디오, 아틀란타 라디오코리아 등 주요 방송사와 중앙일보, 한국일보, 뉴욕일보, 타운뉴스, 교차로, 밸리뉴스 등 주요 신문사가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젊음 회복 기술, 텔로유스를 소개합니다.



### 건강의 ‘마스터 키’, 줄기세포

#### 텔로유스는

우리 몸의 골수에서 줄기세포 배출을 최대 3,600%까지 유도하는  
10년 이상 앞서간 세포신호(Cell Signaling) 기반의 최첨단 생명공학 기술로,  
몸 전체의 구조적 균형, 기능적 회복, 그리고 감정적 체계까지  
근본적으로 되살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 텔로유스의 핵심 특징

10년 이상 앞서간 최첨단 생명공학 세포신호 기술  
골수에서 줄기세포 배출 최대 3,600% 유도  
온몸의 구조 · 기능 · 감정 체계까지 재생 & 회복

#### 퀀텀 젊음회복 6개월 프로그램

패키지 \$2,478

**무료 증정** **새해 프로모션**  
**\$2,478 패키지 구매시**  
**텔로유스 파우더 한병(\$300)**

### 12가지 국제인증마크와 제3기관 임상실험들, 그리고 수많은 체험사례들이 텔로유스의 퀀텀 젊음회복 프로그램을 증명합니다!

Dr.D\*\*Kim님: 갑자기 찾아온 전립선4기암 진단은 60여년간 의사생활을 해온 나에게도 실로 큰 충격이였습니다. 하지만 젊음회복프로그램을 통해 전립선암수치를 측정하는 PSA가 400에서 209, 1.5, 0.8로 떨어지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홍반변성이 좋아진 것은 신경과 전문의로서 가히 우리몸에서의 줄기세포가 불가능하다는 신경세포도 되살릴수 있음을 확인해주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Dr.J\*\*Park님: 22년간 가정주치의로 많은 환자들을 돌보았지만 정작 내 자신의 혈당은 약으로도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높은 혈당으로 인해 다리부종이 심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혈당이 조정되며 붓던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A1C 가 8.1에서 7.3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이\*\*님: 심장수술, 훼장암수술에 이어 두번의 뇌출증이 오며 위커로 겨우 걷던 것이 지금은 혼자 걸을 수 있고, 물조차 입으로 먹을수 없어 G-tube를 낀 채 생활한지 1년이 넘었는데, 젊음회복 프로그램 5개월째인 지금, 조금씩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 다시 음식을 먹을 수 있는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S\*\*님: 친구들이 보톡스 맞았냐고 물어봅니다. 70대에 얼굴이 이렇게 밝아지고 팽팽할 수 있을까 거울보는 것이 행복합니다.

J\*\*님: 지난 40여년 사용해오던 십여가지 약에 의지하지 않아도 하루 생활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이\*\*님: 부끄러워서 숨기고만 있었던 발톱무좀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W\*\* 님: 20년간 복용하던 우울증약을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님: 불면증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날마다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D\*\*님: 70대이지만 동창회가면 제일 젊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날마다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레\*\*님: 90대에도 소일로 밭일하시며 마을에서 제일 건강하시다는 저의 노모의 건강은 텔로유스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F\*\*님: 공황장애 약에 의지하지 않고도 많이 편해지고 자유로워졌습니다.

R\*\*님: 간기증상들이 다 없어졌어요, 늘 피곤하면 나타나던 구순염도 이제는 더이상 나오지 않네요

S\*\*님: 평생 고생하던 천식때문에 기침을 달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 너무나 멀쩡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 님: 무기력함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뿐만 솟습니다.

\*\*자님: 80대에도 고운 피부와 젊은 에너지로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J\*\*님: 10년동안 고생하던 혈당조절이 이제 정상으로 잘 됩니다.

N\*\*님: 딸인 저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던 엄마가 저를 알아보세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 외 수많은 체험사례들을 [www.TeloYouthKorean.com](http://www.TeloYouthKorean.com) 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임상실험 Clinical Studies

인지기능 46.2% 향상/줄기세포배출량 377%. University of Miami

우울증개선 Blefgell Hospital, Kongsberg, Norway

스트레스호르몬 50%까지 감소. University of Trier, Germany

성욕구/만족도 University of Trier, Germany

근육량 증가 University of Colorado

#### 이런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 120세까지 건강하고 젊게 사시고 싶은 분들
- 역노화 (Reverse aging) 기술력으로 10년이상 젊어지고 싶은 분들
- 밤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힘듬/ 기운 없고 늘 피곤함
- 각종 염증으로 늘 고생함/ 스트레스를 못 이겨냄/ 의욕이 없고 우울함
- 장 트리플/ 소화력이 떨어짐/ 눈이 건조하고 침침함
-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짐/ 혈당조절이 힘듬/ 통증에 시달림
- 몸의 여러 구조와 기능들이 만성적으로 고장나 고민하고 계신분들



TELOYOUTH

[www.TeloHealing.com](http://www.TeloHealing.com)

#### [파트너 모집 | 40-50대 환영]

최첨단 생명공학 세포신호기술 기반

젊음회복 프로그램 전문 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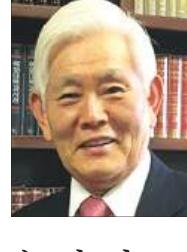
의미 있는 일과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분

문의 : 레이첼 건강 수석 코치

☎ 714-851-8035

## 송정명 칼럼

## 새 일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송 정 명 목사  
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 회장

참 어렵고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2025년도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에 묻혔습니다. 그와 함께 새로운 소망이 넘치는

2026년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병오년 붉은 말띠의 해라고 은근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먼저 장간 22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애독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가 봄담고 있는 교회 위에 소망으로 새로운 한 해를 열어 주실 하나님

의 크신 은혜와 크신 손길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노정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마음 깊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

다. 예외가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 시대에 지성적인 선지자로 인정받고 있는 이사야 선지는 우리들의 이런 마음을 살피시며 이렇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사 43:18).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불들려 가서 70여 년간 혹독한 고난과 멸시를 받으며 깊은 상처를 입게 될 것을 내다보고 예언으로 주신 위로의 교훈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런 소망의 메시지도 이어 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

낼 것이다”(사 43:19).

이는 그들이 70여 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다시 돌아와 무너졌던 성전을 복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생활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2026년도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새 일을 보여 주실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우리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체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양팔을 좀 넓게 벌려 하나님께서 보여 주실 새 일을 받아들여 봅시다.

## 이상명 칼럼

##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이상명 총장



이 상 명 총장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지배하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생애의 축소판 같은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과 영광으로 채워 나가 온전함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딛는 작은 걸음마다 주의 영광을 향한 향기가 배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길로 빛어지는 한 편의 아름다운預정이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시 희망을 노래합니다. 이는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부를 “새 노래”(시 33:3)에 담긴 희망입니다. 그 희망이 결기로, 그 결기가 성취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내년이라는 시간의 새 마디에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일과 내년은 언제나

올 것 같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단할 수 없는 내일과 내년에 기대기보다 생애의 축소판 같은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현재를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새해는 어느 공동체보다도 교회는 큰 도전과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요구합니다. 격량의 현시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도전에 맞서 교회는 어떤 ‘새로운 모습’을 추구하기 보다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소유지향적 기관이 아닌 관계지향적 공동체로, 세속적 가치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물리적 공간에서만이 아닌,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개교회주의를 넘어서 공동체적 연대와 결속으로 우리 사회를 섬기고 환대를 베푸는 데에 하나님

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환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엡 2:3)였던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환대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일구어 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초입에 서 있는 지금, 우리는 기술이 단순히 도구를 넘어 인간의 사고와 창의성을 확장하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명의 진보가 가속화하더라도 영혼의 허기를 메울 수는 없습니다. 그 빙자는 하나님만이 메우실 영역입니다. 바로 그 공백을 하나님의 말씀과 현존으로 채우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이 사명을 따라 천상의 지혜와 묵시적 비전으로 새해를 살아가실 기독일보 독자들의 앞날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 장병우 칼럼

##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사 43:19)



장 병 우 장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LA협의회 회장

주님 안에서 신년새해에 인사드립니다. 2026년 신년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과 생활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해를 돌아보니 아쉬움과 후회도 있었지만, 또 한편 되돌아 보니, 감사한 일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많은 열매를 거두었고, 어떤 분은 참고 견뎌야만 했던 시간을 지나오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았으셨다는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의 결심보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흔들려도,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새해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소망의 시간이요, 은혜를 다시 불드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새해를 맞는 우리의 자세는 분명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는 해가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빨리 가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잠시 멈출 줄 아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이어가

는 신년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해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LA협의회가 한인커뮤니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하려고 합니다. 한인사회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한인 기독교인들과 더불어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로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LA협의회를 위해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고 부족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섭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사랑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단단히 지지해 주는 등받이 사용으로 편안한 운전을 경험해 보세요.  
매일 운전하시는 분들, 장거리 운전하실 경우,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허리를 든든히  
바쳐주는 차량용  
**등받이**

**장점1**  
나무는 좌석에  
기대었을 때  
신체에 맞게  
윤곽이 잡힘

**장점2**  
커비 소재는  
다이빙 슈트로  
제작

**장점3**  
내구성이 뛰어나며  
운전자에 맞게  
늘어짐

[www.j1mart.com](http://www.j1mart.com)

웹사이트에서 바로 주문하세요.

**문의 : 213-434-1170**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 새해맞이 세일즈 이벤트



**NEW 2026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NEW 2026 HYUNDAI  
Elantra**  
Hybrid

# 0%

APR Financing  
(차종에 따라서)

72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NEW 2026 HYUNDAI  
Ioniq 9**  
Limited



**NEW 2026 HYUNDAI  
Santa Fe**  
Calligraphy



**NEW 2026 HYUNDAI  
Ioniq 5**  
Limited RWD

함께 일할 세일즈맨 구합니다!



PAUL KIM



MIKE LEE



JUSTIN KIL



CHARLEY JEONG



JAMES PARK



HARLEY KIM



Frank Kim



Sean Kim



Jae Le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HYUNDAI**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http://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한인 메카닉 서비스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예배 대상과 방식 확실히 뒤바꾼 디지털

##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립적 도구에 불과하지 않다



디지털 거미줄을 타는 그리스도인

새뮤얼 제임스 | 이지혜 역  
| 생명의말씀사 | 264쪽 |  
18,000원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으며, 어떤 환경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않는다면, 디지털이 제시하는 '편리한 진리'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진리 앞에 다시 바로 서기 위한 영적 인식의 전환점이 되어 줄 것이다. 당신도 이 책을 통해 단지 미디어를 '절제' 하는 것 아니라 디지털 환경 자체를 분별하는 자로 변화하게 되길 소망한다

'스마트폰이 해롭다'는 인식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 있다. 시간 낭비, 유해한 미디어가 주는 영향, 규모 없는 생활 등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피해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힘쓰는 일, 곧 경건한 삶에 큰 방해 물로 작용하기 때문에, 최근 기독교 서적 중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책이 계속 출간되고 있다. 특히 토니 라인키는 〈스마트폰, 일상이 예배가 되다〉(CH북스, 2020)에서 디지털 기기와의 전쟁은 결국 예배 전쟁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제기했다.

〈디지털 거미줄을 타는 그리스도인〉 저자 새뮤얼 제임스 또한 첫 저서인 이번 책을 통해 예배자인 우리를 디지털 기기와 미디어가 어떻게 빚어가는지 적나라하게 고발한다. 원제는 'Digital Liturgies'로, '디지털 전례'라는 의미다. 전례란 교회가 정한 예배 방식인데, 디지털이 우리 예배 대상과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예리하게 분석할 것을 기대하게 한다. 부제는 'Rediscovering Christian Wisdom in an Online Age'로, '온라인 시대, 기독교 지혜를 재발견하라'는 적실한 요구를 책이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TGC에 글을 기고하고 미국 기독 서적 전문 출판사 크로스웨이 부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제임스는 2024년 이 책으로 크리스천 북 어워드를 수상했다.

저자는 기계 자체보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식인 디지털과 웹에 주목한다. 그래서 번역서 제목이 '디지털 거미줄(web)을 타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다. 짧게 자신이 어떻게 디지털 세상에 빠져 들었는지 소개하면서, 저자는 웹(web)이 중립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미온한 태도를 버리라고 권면한다.

"웹은 드라이버나 렌치 같은 도구와는 다르다. 웹은 우리에게 말을 건다. 우리가 웹에 말하면 웹은 대답하는데, 이 대화가 디지털 시대에 저점 더 커지는 삶의 한 측면을 구성한다(2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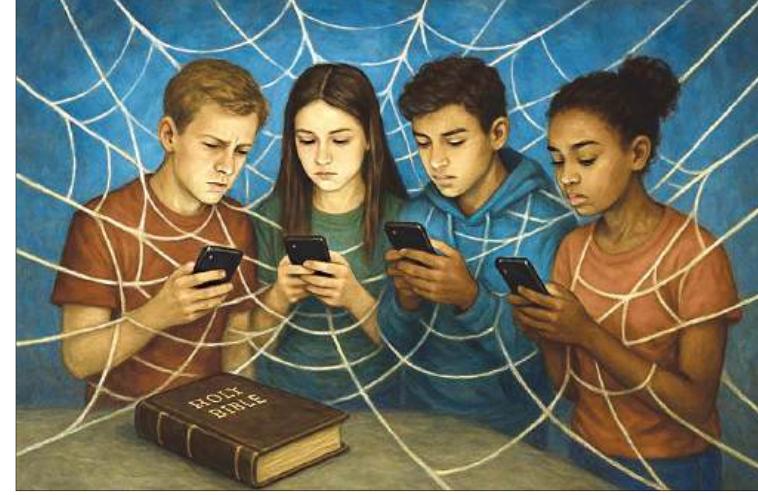
디지털과 웹은 실제로 우리를 특정한 모습으로 빚는다. 예배하는 존재로 지금받은 우리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도록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다. 1부에서 저자는 테크놀로지가 현실이 아닌 가상 세계에서 각자 편향되고 독립된 정보를 가진 자칭 전문가가 되게 만드는 문제와, 오래 묵상하고 사고하여 정돈된 생각을 점차 잃어버리는 문제를 지적했다.

문제가 더 커지는 이유는 온라인 소통 방식에 길들여진 우리가, 자기 생각과 맞지 않은 정보를,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언제든 쉽게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데 익숙해졌다. 한마디로 최첨단 테크놀로지가 확실히 진리를 지켜내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

2부에서 저자는 본격적으로 '디지털 전례'를 설명한다. 디지털이 우리를 빚어가는 방식을 말하는데, ①디지털은 나만의 진리에 고착되게 만든다. 나의 의견, 나의 태도, 나의 감정이 곧 진리이며, 누구도 그 것에 반기를 들 수 없다. 적어도 '나에게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차단하면 그 만이다.

②디지털은 쉽게 분노하게 만든다. 익명성에 숨어 실제 인격적 관계 안에서 절대로 드러내지 않을 감정과 막말을 쏟아붓게 만든다. ③디지털은 누군가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다니며 비난하게 만든다. ④디지털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계속 소비하게 만든다. 무한 스크롤과 클릭을 통하여 허기진 영혼을 채우려 하지만, 더 갈증만 심해질 뿐이다. ⑤디지털은 공허함을 기중한다. 더 많은 친구, 좋아요, 공감을 얻어도 여전히 외롭고 무의미하다.

제임스는 디지털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말하는 방식, 표현하는 방식, 나아가 삶의 방식을 어떻게 바꾸는지 매우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으로 고발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진리와 예배 방식에 따라 어떻게 그 잘못된 방식



스마트폰이라는 거미줄에 걸려 성경을 읽지 않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모습을 생성한 그림. ©챗GPT

에 맞서 싸울 수 있을지 대안을 제시한다.

팀 켈러는 "새뮤얼 제임스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을 썼다"고 평가했고, 조너선 리먼은 이 책을 자녀들과 그들의 모든 학교 친구들, 교회 성도들에게 "읽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러셀 무어가 말한 것처럼 "거의 모든 사람이 디지털의 노예가 되어 있거나 그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기 때문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단지 '스마트폰은 해롭다.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어떻게 하나님 닮은 형상을 훼손하고 복음이 새롭게 태어나게 한 우리 영혼을 옛 사람의 방식으로 되돌려 놓는지 알아야 한다.

새뮤얼 제임스가 이 책을 통해 보여주는 진실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독자들이 디지털 거미줄에 푸짝없이 걸려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되찾기를 간구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In all your ways submit to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s straight.  
PROVERBS 3:6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 각종 보험 완비  
Comprehensive Insurance Coverage
- 다양한 임상경험  
A variety of Clinical Experience
- 체질 맞춤 보약, 알약  
Constitution-Customized Herbal Medicine
- 체열 사진촬영  
Thermal Imaging Photography



**샬롬한의원**  
Diamond Bar Shalom Acupuncture Clinic  
Dr. June Kim, LAc



(909) 860-4260  
cell: (213) 518-4635 / shalomacu.drkim@gmail.com

22640 Golden Springs Dr., STE B, Diamond Bar, CA 91765

1st Time  
Discount  
**50%**  
with Google Reviews



[서성록, 한 점의 그림] 신영현, 역사와 도시 바라보는 애통의 시선

## 시대의 무감각 깨뜨리는 카나리아의 울음소리

외부 단절된 삶 신앙적 시각으로 광야의 예수 대신 자신 그리기도 구속과 영적 깨달음 회화적 변용 십자가 사랑 묘사와 초현실 구성 그다지 환영 못 받아도 화풍 고집 초현실적 발상 최적 스타일 판단 도시문명 위험성 경고 작품 발표 애통의 언어 현실 안타깝게 주시

신영현(1923-1995)은 평안남도 평원군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양사범학교를 졸업하고 해방 직후 월남한 뒤 남한 생활을 시작했다. 화가 수업을 받기 위해 고향을 잠시 떠나 유학길에 오른 것이다.

그는 서울 장안에서도 손꼽히는 화가 이쾌재의 '성북회화연구소'에서 데생을 배웠는데, 김창렬·전상수 같은 동기생들과 함께 1949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진학했다.

대학을 졸업한 신영현의 작품활동은 그다지 활발한 편은 아니었다. 1978년 미술회관 개인전과 1985년 윤갤러리 초대전 등 두 차례 개인전 외에는 개인전을 개최한 바가 없으며, 1950-1960년대 열린 국전에 작품을 출품한 것 외에 이렇다 할 움직임은 발견되지 않는다.

신영현은 화단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활동했는데, 그의 제자인 권영호 작가에 따르면 스승은 신장이 좋지 못해 가급적 외출을 삼갔다고 한다. 건강 문제가 그의 발목을 삼은 셈이다.

외부와 단절된 삶은 신앙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 영향을 미쳤다. 광야의 그리스도 대신 자신을 종종 그려넣기도 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만큼 절실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삶

의 방향이 확실해지자, 작품 성격도 선명해졌다. 그의 작업은 우리 강토를 훔친 전쟁의 비극, 하나님의 언약, 세속 도시의 딜레마 등을 주제로 삼았다.

그의 작품을 알아보기 전에 그의 활동 무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가 지속적으로 참여한 전람회는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정기전이었다. 작가는 1966년에서 1983년 제18회까지 거르지 않고 매년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정기전에 참여하는 열정을 보였다.

같은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작가들과 교류할 수 있었기에, 또 협회에는 선후배 실향 작가들이 상당수 포진돼 있었기에 꾸준히 작품을 출품해온 것으로 보인다.

한 작가에게 있어 충격적인 사건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신영현의 인생을 뒤바꾼 사건은 다름 아닌 6.25 전쟁이었다. 서울대 미대 재학 중이던 그는 6.25 전쟁으로 부모와 헤어지게 되었고, 즐거워 실향민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커다란 충격과 아픔이 되었다.

분단된 조국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불효의 죄의식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다. <임진강>(1971), <모정은 산하를 누비고 1>(1971), <이월기>(1971), <모정은 산하를 누비고 2>(1980), <북망한>(1980년대) 등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실어낸 작품이다.

전쟁의 참화를 느낄 수 있는 작품도 여رة 점 발표하였다. 이중에서 신영현의 <대동교의 비극>(1958)은 1950년 12월 초 폭격기의 평양 대동교 폭파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다. 얼핏 보아서는 무엇을 나타냈는지 분

간하기 어렵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서서히 이미지가 부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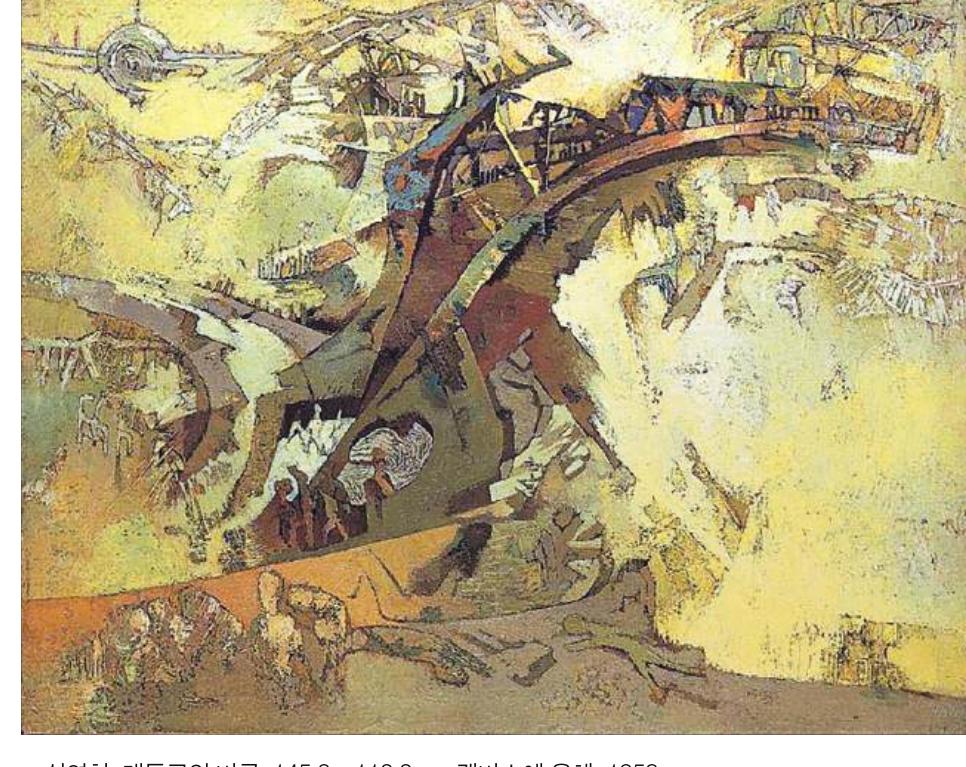
끊긴 철교와 도강하려는 사람들의 필사적인 노력, 포연이 한데 엉켜 아비규환의 도가니를 식별할 수 있다. 처참하게 휘어지고 망가진 철교와 도강 장면은 전쟁의 현장을 말해주는 동시에 피난의 고통, 이산 가족과 상실감, 문명의 후퇴 등을 성찰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을 소재로 한 또 다른 작품으로는 <묘지>(1958)를 들 수 있다. 작가는 전 국토가 전쟁으로 인해 절망의 땅이 되어버렸음을 말해준다. 곳곳은 묘지가 촘촘히 들어서 있고 불에 타거나 폭격으로 아수라장이 된 땅을 갈색 톤으로 도포했다. 화면에는 나무토막이나 파편, 그리고 묘지 등 막막함을 상징하는 이미지들로 넘쳐난다.

그에게 있어 중요한 작품 주제는 복음과 관련된 작품들이었다. 단순히 성경 사실을 도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영적 깨달음을 회화적으로 변용한 작품이다.

<부활>(1970)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광휘를, <신약의 전개>(1970)에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힘찬 걸음으로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을, <광휘의 아침>(1973)에선 생명의 빛을 조명하는 하늘의 은총을, <복음의 끝>(1989)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고 <참회록>(1977)은 죄인마저 용납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각각 증언하고 있다. 각각의 그림들은 생생한 사실묘사와 함께 각 장면을 초현실적으로 구성하는 특질이 걸들어져 있다.

물론 그의 작품은 묵시적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는데, 가령 <봉양>(1975)에서는 커다란 원(지구)이 두 동강 나면서 떠나는 장면을, <폐도기>(1975)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 도시의 참상을, 일련의



▲신영현, 대동교의 비극, 145.3 x 112.2cm, 캔버스에 유채, 1958.

<도시>(1978), <도시>(1983-1984) 연작에서는 도시의 위기 문제를 다루고 있다.

문학평론가 김우종은 그의 일련의 도시 연작이 T. S. 엘리엇의 <황무지>를 연상시킨다면서, 삽막한 현대문명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물음을 던지고 있다고 했다(『세대지』, 1978년 4월호).

김우종의 말처럼 신영현의 <도시>(1978)는 밀집된 고층빌딩과 죽어가는 인간의 대조를 통해, 도시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고발한다. 막대한 자본으로 도시를 개발하고 새롭게 단장하지만 거기서 삶을 채워주는 충만함을 발견하기란 힘들다.

그보다는 오히려 자본과 소비, 욕망과 유혹으로 솔렁이는 환각적 이미지를 마주할 뿐이다. 도시 공간에서 우리는 '비존재하는 존재'로 살아간다(김승환, 『도시를 어떻게 충만케 할 것인가?』, 새물결플러스, 2024, 163쪽). 그곳의 거주자이면서 정작 이방인처럼 거주하는 셈이다.

이사야가 황폐한 성읍을 중수할 것을 촉구했듯(사 61:4), 작가는 건물에 깔려 신음하는 인간을 통해 죄로 물든 세속 도시를 중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신영현의 작품 세계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그리스도인 물화이다. <그리스도>(1970)는 눈을 감고 무엇인가 생각에 잠긴 그리스도의 모습을, <광야의 그리스도>

도>(1972)는 광야에 흘로 계시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1977)는 인간을 대속하시려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상한 그리스도(1977),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그리스도(1981)를 각각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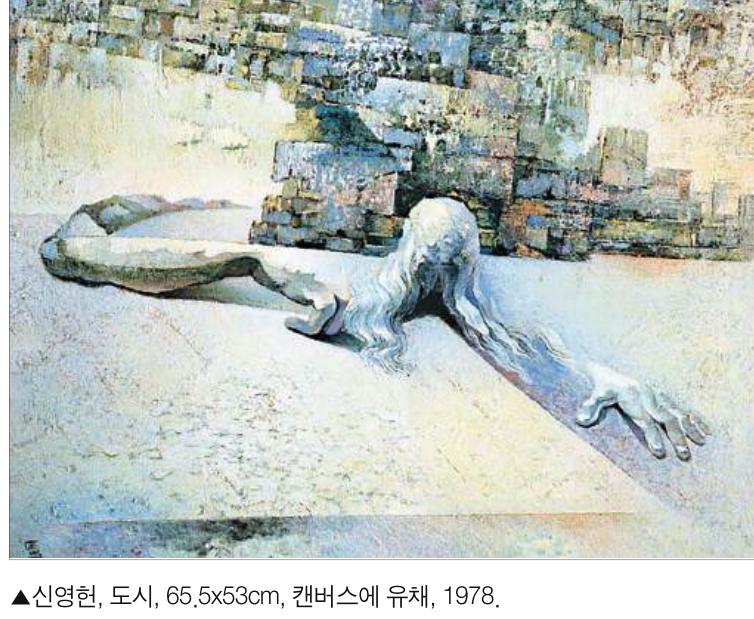
그의 인물화는 단순한 그리스도의 초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구속하실 뿐 아니라 역사를 구속하시고 무서운 속도로 치닫는 세속도시를 구속하는 분으로 그리스도를 묘출하였다는 표시가 된다. 그리스도의 주권사상을 은연중 찾을 수 있다.

신영현의 회화는 우리 미술지형에서도 독특한 위치에 있다. 그의 초현실적 회화는 국내에서는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작품을 고집하였다. 시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초현실적 발상이야말로 그의 생각을 잘 구현해 줄 수 있는 최적의 스타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말년에 작가는 <도시> 연작에서도 보듯, 공간의 충만함을 통해 관계성을 촉진하기보다 성과와 기능 위주의 도시 문명이 지난 위험성을 경고하는 작품을 발표했다.

비인간화와 물질주의가 기준으로 자리잡은 현대 사회에서 작가가 얼마나 시대의 무감각을 깨뜨리고 애통의 언어로 현실을 안타깝게 주시하였는지 짐작케 한다. 그의 예술은 우리 사회에 들려주는 카나리아의 울음 소리 같은 것이었다.

서성록 명예교수



▲신영현, 도시, 65.5x53cm, 캔버스에 유채, 1978.

물론 그의 작품은 묵시적 분위

기를 간직하고 있는데, 가령 <봉양>(1975)에서는 커다란 원(지구)이 두 동강 나면서 떠나는 장면을, <폐도기>(1975)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처럼 타락한 도시의 참상을, 일련의

1. 말차 라떼-K-스타일 빙수와 함께 즐기는 전시 감상!

2. 넓고 시원한 공간, 식물과 예술이 어우러진 감각적 카페!

3. LA 코리아타운 한복판에서 즐기는 예술 같은 휴식!

4. 작업하기 좋은 와이파이·주차 가능·친절한 서비스!

**카페와 예술이 만나는 공간!**

Cafe du Gallery & E.K. Art Gallery

영/업/시/간 월~토: 9AM~7PM(일요일 휴무)

E.K. ART GALLERY <http://www.ek-artgallery.com/>

문의 : 323-272-3399  
1123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CAFE  
du  
GALLERY

[www.cafedugallery.net](http://www.cafedugallery.net)

# “복음 위에서 한국교회 연합하도록 헌신”

한교연, 천환 제15대 대표회장 취임 및 신년하례 감사예배 개최



천환 목사가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천환 목사)이 9일 오전 한국교회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제15대 대표회장 취임 및 신년하례 감사예배’를 개최했다.

행사는 예배, 취임식, 신년축하 및 하례 순으로 진행됐으며 김바울 목사(상임회장)가 인도한 예배에선 이영한 장로(상임회장)가 대표기도를 드렸다. 이어 서영조 목사(총무협회장)가 성경봉독을 했으며 전광식 목사(전 고신대 총장)가 ‘하나님의 영광이 동에서부터 오는데’(에스겔 43:1-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남가주 교계와 모든 성도님들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로 충만한 새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2026년 주력사역으로 **기도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회장 김은목 목사

주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마가다락방의 기도!  
마가다락방에 모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120문도의 기도!  
교회를 교회되게 했던 제자들의 기도!  
다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되는 기도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서로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 하며, 온 백송의 칭송을  
받아 구원 받는 사람의 수가 다시 날마다 더하게 되는 날을 꿈꾸며  
새해 사역을 시작합니다.  
기도와 협력, 동참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남가주기독교교회 협의회 제56대 회장

2026년 표어

## 다시 성령의 권능으로!

Again,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 전반기

- 1월**
- 1) 기자 간담회
  - 2) 미주한인의 날 123주년 감사예배 주관
  - 3) 신년 연합기도회
  - 4) 신년 시무감사예배 및 하례식
  - 5) “교회회복과 선교를 위한 연합기도성회”

- 2월**
- 1) 연합기도성회

- 3월**
- 1) 신학세미나
  - 2) 연합기도성회

- 4월**
- 1) 부활절새벽 연합예배
  - 2) 연합기도성회

- 5월**
- 1) 스승의날 위로여행
  - 2) 연합기도성회

- 6월**
- 1) 연합기도성회
  - 2) 경목 사역

### 후반기

- 7월**
- 1) 연합기도성회

- 8월**
- 1) 8.15 광복기념 감사 Festival
  - 2) 연합기도성회

- 9월**
- 1) 멕시코 단기선교
  - 2) 연합기도성회

- 10월**
- 1) 제1회 할렐루야 남가주 기도성회
  - 2) 차세대 목회자 후원 이사장배 골프대회

- 11월**
- 1) 사랑의 쌀 나눔 행사
  - 2) 총회 및 후원행사: 23일(월)

- 12월**
- 1) 이취임 및 성탄감사예배

## 시무 감사예배 및 하례식

- 주제 : 항상 기뻐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 일시 : 2026년 1월 21일(수) 10:30am
- 장소 : 평화교회

## 교회회복과 선교를 위한 1월 연합기도성회

- 주제: 다시 성령의 권능으로
- 일시: 2026년 1월 25일(주일) 4pm
- 장소: 평화교회

문의 : 사무총장: 최영하 목사(213.999.1923) 사무국장 : 자스민 박 전도사(310.321.2348)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